

## 건강도시와 살롬커뮤니티의 관계\*

:생활행정학과 신학의 만남

조무성(고려대 공공행정학부 교수)

### 논문초록

건강도시란 시민의 마음, 몸, 사회, 환경의 건강인 전인건강을 위해서 시 정부와 민간이 함께 애쓰는 도시이다. 우리나라의 48개 도시가 WHO 건강도시 시연맹에 가입되었다. 생활행정학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는 행정학이다. 신학의 주제인 살롬커뮤니티는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결과로서 성경적 건강도시를 의미한다. 생활행정학과 신학은 뿌리가 이웃사랑인 삶의 질 향상을 통해 만날 수 있다. 성경적 건강도시란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성경적 전인건강을 위해 애쓰는 도시이다. 성경적 건강도시와 비성경적 건강도시란 기독교 세계관을 뿌리로 두고 있는가의 여부에 달려있다. 성경적 건강도시란 하나님을 사랑하며 영적 건강을 바탕으로 한다. 일반적 의미의 건강도시와 살롬커뮤니티의 공통분모는 이웃을 사랑하며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이러한 공통분모를 확대해 가는 것은 오늘날 교회와 기독교인들의 부정적 이미지를 바꾸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중요한 전략이다. 따라서 살롬커뮤니티인 성경적 건강도시를 만들기 위해 예수님의 공생애의 첫 메시지인 회개와 끝 메시지인 제자를 키우는 일에 주력해야 한다. 기독교인은 천국시민으로 건강도시 특히 성경적 건강도시를 위해서 힘써야 하고 교회는 도시의 영적,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 환경적 고통을 치유하는데 다양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주제어:** 건강도시, 살롬 커뮤니티, 생활행정학, 전인건강, 성경적 건강 도시, 삶의 질, 복음주의, 자유주의 신학, 공적 신학

---

2008년 11월 19일 접수; 12월 6일 1차 수정; 12월 19일 2차 수정; 12월 20일 게재확정.

\* 본 논문은 고려대학교 교내 특별연구비에 의해 수행되었음. 이 글은 2008년 6월 14일 제 2회 전인건강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건강도시와 도시환경의 신학적 접근: 살롬커뮤니티 형성"의 내용을 새롭게 보완함.

- I. 문제제기
- II. 건강도시의 생활행정학적 접근
- III. 살롱공동체의 신학적 관점
- IV. 건강도시와 살롱공동체의 공통분모
- V. 성경적 건강도시를 향하여
- VI. 결론 : 요약 및 한계

## I. 문제제기

모든 시민은 마음과 몸, 사회와 환경의 고통을 덜고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추구한다. 특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예수가 하나님에 대한 전인격적 사랑과 함께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마가복음 12:31)고 큰 계명을 주셨기에 교회나 성도는 이웃의 고통에 대해서 자기 일처럼 충실해야 할 책임이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모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봉사함으로 건강국가와 건강도시를 만드는 것은 국가의 본분이다. 기독교 공동체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도시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는 것도 교회의 본분이다.

그러면 국가는 국민의 고통을 치유하고 삶의 질 향상의 본분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인가? 잘 감당하지 못하면 왜 그렇고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인 교회는 빛과 소금으로 도시의 고통을 잘 치유하고 있는가? 아니면 왜 그렇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전자의 질문과 관련하여 참여정부는 경제적 양극화, 사회적 갈등, 높은 실업률, 측근 비리 등으로 이명박 정부에게 정권을 내 주었고 국민의 고통을 치유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실패했다. 이명박 정부는 국정지표의 핵심으로서 섬기는 정부를 표방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몸을 낮추어 국민을 섬기겠다."고 여러 번 말해 왔고 청와대 홈페이지에서도 정부조직도 위에 "국민을 섬

기겠습니까."라고 적혀있다(인수위 백서, 2008).<sup>1)</sup> 그러나 임기 초반부터 인재등용실패, 국제 경제 환경의 악화, 정책의 일관성 결여, 운하정책의 추진, 여론수렴미비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수입쇠고기의 광우병사태와 관련하여 민심이반이 커지는 난국을 맞았으며 세계적인 경제 질서의 붕괴로 당면문제를 풀어가기 어려운 환경에 직면해 있다. 앞으로는 어떻게 모르지만 이명박 정부의 초반기는 국민의 고통을 치유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실패했다. 어려운 국제경제 환경 속에서 경제문제와 국민통합 등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

건강도시(Healthy cities)는 위의 질문에 대해 답을 찾는데 좋은 접근이다. 그 이유는 건강국가를 만들 수 있는 역사적 대안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 시장 시절 청계천복원사업은 건강도시사업의 대표적인 것이다. 1984년 캐나다 토론토의 「건강의료를 넘어 (Beyond Health Care)」라는 심포지엄에서 아이디어가 싹났고 유럽에서 그 아이디어가 심어져서 WHO는 1987년부터 4차에 걸쳐 건강도시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다. 유럽지역에는 1,200 여도시가 국가 건강도시 네트워크에 가입이 되었고 우리나라는 48개 도시가 서태평양 지역 건강도시연맹에 가입이 되었다. 한국은 올해에 그 연맹에서 여러 면에서 수상도 했다<sup>2)</sup>. 건강도시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고

1) 이 대통령은 당선소감(2007.12.19)에서 "저는 겸허한 자세로, 섬기는 마음으로 국민들 앞에 국정을 수행하면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선 후 신년연설 마지막에 "언제나 시작하는 그 초심을 국민을 섬기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다(인수위 백서 2008: 320). 대통령민주신당 방문시(2008.1.17)에 이 대통령은 "권력자가 아니라 경영자에 불과합니다."(인수위백서 2008: 337). 대통령 취임사(2008.2.25)에서 이 대통령은 서두에서 "저는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국민을 섬겨 나라를 편안하게 하겠습니다."국립현충원 참배시(2008.2.28)."국민을 섬기며 선진일류국가를 만드는데 온몸을 바치겠습니다."(인수위백서 2008: 339).

2) WHO와 서태평양건강도시연맹(AFHC)에서 2008년 건강도시상이 시행되었다. 7개의 상을 5개 지자체에서 받았다. 활기찬 노후생활과 안전부문(서울 성북), 우수공중위생 시설 프로그램부문(서울 성북, 경남 진주), 기후변화 대응 및 도시 내 건강부문(강원 원주), 포괄적인 금연정책부문(강원 원주, 경남 창원), 폭력예방부문(충남 금산)이다.

시민의 마음과 몸, 사회 및 환경의 건강을 추구하는 것이기에 행정의 이념인 봉사와 직결된다. 특히 행정학자로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둔 생활행정학을 탐구했으므로 깊은 관심을 갖는다.

후자의 질문과 관련하여 한국교회와 기독교인들이 도시의 고통을 잘 치유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단적인 예로 1995년과 2005년을 비교해서 불교와 천주교는 교인의 비율이 증가했지만 한국교회는 기독교 비율이 하향곡선을 긋고 있다는 점이다(www.kosis.kr).<sup>3)</sup> 한국 교회의 교인 수는 1995년에는 8,760,336명(19.7%)이었는데 2005년에는 8,616,438명(18.3%)으로 14만 4천명이 줄었다. 이러한 추세가 멈추고 있는지 반전되고 있는지 계속되고 있는지 2015년 새로운 통계가 나올 때까지 정확한 현황은 알 수 없다. 그러나 낙관할 수 없고 현재까지는 오히려 비관적이다. 그 이유는 3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발표한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가 하위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기윤실·교회신뢰회복네트워크, 2008: 31).<sup>4)</sup> 이것은 지난번 아프간 사태에서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의 강한 표출을 발견하고 그 이후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이러한 이미지가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해준다. 기독교의 본질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 동전의 양면처럼 불가분의 관계로 묘사되어 있는데 다수의 교회들이 이런 점을 소홀히 하며 개교회주의나 교파에 치중되어 있다. 따라서 같은 도시 안에 교회끼리 도시의 고통을 함께 치유하는 모습이 미약하고 개교회는 지역사회와 괴리되어 있다.

shalom 공동체(shalom community)는 위의 질문과 관련하여 답을 찾는 훌륭한 개념이다. 린시쿰(Linthicum, 2005: 4-22)은 이 개념을 공동체 변혁을 위

3) 불교: 10,726,463명(22.8%) 1995년 보다 40만 5천명 증가, 기독교: 8,616,438명(18.3%) 1995년보다 14만 4천 명이 감소, 천주교:5,146,147명(10.9%) 1995년보다 219만 5천명이 증가. 불교는 인구 중 비율은 23.8%에서 22.8% 줄었지만 교인 수는 증가되었고 가톨릭은 비율과 교인수가 다 증가했지만 개신교는 둘 다 감소했다.

4) 종교기관의 신뢰도 순위를 보면 가톨릭교회(35.2%), 불교(31.1%), 개신교회(18.0%)의 순위다.

한 핵심개념으로 제시하고 있다. 샬롬(shalom)은 단순히 평화(peace)를 넘어서 치유와 축복을 나타내는 중요한 단어이다. 타락한 인간이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여 관계회복의 정상적인 삶의 모습이 샬롬인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자신과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회복의 열매가 샬롬이며 이것은 성경적 전인건강이라 표현할 수 있다. 성경적 전인건강을 위해 애쓰는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모습인 새 하늘과 새 땅의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을 묘사하고 있다. 성경 곳곳에 도시에 대한 묘사가 나오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도시를 성으로 번역했기에 복음이 현실 속에 역사하는 현실감을 위축시키고 있다. 구약에는 가인의 후손이 만들어간 도시를 묘사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도시를 통해서 전개되며 예수님의 사역과 바울의 사역이 도시를 배경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현실교회도 도시화의 비율이 빠르게 진행되므로 대부분 도시 속에 존재하고 있다. 교회와 도시는 어떻게 보면 공동운명체이다. 도시의 고통이 많아지고 문제가 많아질수록 사람들이 그 도시를 떠나고 그 도시는 황폐화될 것이다. 교회가 도시의 고통을 외면하면 마찬가지로 도시민이 떠남으로 교회는 위축되고 쇠하여질 것이다. 선교적 관점에서 도시에 관한 연구는 그동안 많았다(Conn and Ortiz, 2001; Greenway & Monsma, 2000; Claerbaut, 2005; Conn et al., 2002, Meyer et al., 1992). 우리나라는 연구가 많지 않지만 『신학지남』을 통해 총신대 교수들이 많은 논문을 발표했고 산업선교와 관련한 논문이 발견된다(간하배, 1994; 정병관, 2000, 2006; 김남식, 2000; 김성욱, 2000; 김성태, 1994; 장석만, 2005; 마형락 1997). 도시선교에 관한 논문들은 본 연구에 통찰력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 공적 신학의 연구는 사회의 복지나 도시변혁에 중요한 신학적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Forrester, 2004; Stackhouse, 1997; 이형기, 2008; 이승구, 2008; 김경재, 2006).

그러나 샬롬(shalom)이라는 개념을 통하여 건강도시라는 개념과 교회의 역할을 연결하는 연구는 처음 시도이다. 정부와 일반시민이 건강국가와 건강도시를 만드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성경적 건강도시를 만드는 것과 궁극적 목적은 다를 지라도 도시민의 고통을 치유하는 점에서 많은 공통적 요소를 이끌어 낼 수 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인 교회의 자원을 통해서 도시민의 고통을 치유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일뿐 아니라 건강한 시민 문화를 이루고 도시민에게 삶의 질을 높이는 시정부의 목표와도 부합된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 논문의 목적은 건강도시와 샬롬 공동체와의 관계를 행정학과 신학의 학제적 관점에서 다루려고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생활행정학의 관점에서 건강도시를 어떻게 이해하고 샬롬커뮤니티를 신학의 관점에서 어떻게 이해하며 이 두 가지의 공통분모는 무엇이며 오늘날의 함축적의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해 다루려 한다. 본 연구의 방법은 생활행정학과 신학의 만남을 통한 학제적 접근(interdisciplinary approach)으로서 문헌조사를 주로 하고 사례분석을 부분으로 다룬다.<sup>5)</sup>

---

5) 생활행정학과 신학의 만남은 생활행정학과 신학의 학제성(interdisciplinarity)을 의미하며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두 학문의 공통영역에 대해서 서로 간의 장점을 잘 협동하는 학제적 접근(interdisciplinary approach)을 의미한다.  
(<http://en.wikipedia.org/wiki/Interdisciplinarity>)

## II. 건강도시의 생활행정학의 접근

### 1. 건강도시의 이해

건강도시(healthy cities)라는 말은 건강이라는 말과 도시라는 말이 결합된 것이다. 건강한 도시라고 번역하지 않고 건강도시라고 번역한 것은 건강 도시가 도달된 상태로서의 결과이기 보다는 과정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 좀 더 단축된 표현의 의미를 담는다. 건강도시를 이 땅에 건설하는 목적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고 시민자신의 인격체의 건강과 주변 환경의 건강을 위해서이다. 따라서 건강도시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그 존재목적인 삶의 질 향상의 내용인 삶의 질과 건강 특히 전인건강이라는 핵심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 (1) 핵심개념의 이해

##### ① 삶의 질의 개념

삶의 질은 인간과 생명에 대한 존중이요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삶의 질 연구는 주관적인 관점과 객관적인 관점 및 통합적인 관점으로 나누어진다(조명환·차경호, 1998:15-25; 전인철, 1998:4-10; 하혜수: 1996:82-84; 김영섭, 1996: 587-596).

주관적인 관점의 삶의 질은 개인적이고 심리적인 만족감으로 규범적인 가치와 삶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을 의미한다. 이 경우 인간의 행복과 비슷한 개념이다. 객관적인 관점의 삶의 질은 인간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삶의 조건을 의미하며 객관적인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는 데 특색이 있다(전인철, 1998:12-18; 김광웅외, 1991: 72). 통합적 관점은 내면적인 심리와 객관적인 조건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시각에서는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관점을

함께 고려한다(조명한차경호, 1998; 김상균, 1996: 217-241). 통합적인 관점 중에서도 물리적, 환경적, 심리적인 측면까지 고려하는 학자도 있다(이달곤, 1990: 289-320).

주관적인 관점은 자신의 삶의 질을 판단하는 존재가 자신이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전인철, 1998: 18-25). 그러나 가치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객관화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객관적인 관점은 서로의 조건들을 비교하여 일반적 기준을 만들기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만 인격적인 존재의 다양성을 무시하고 기계적인 지표를 만들기 쉬운 단점이 있다. 따라서 통합적인 관점이 보다 합리적이다.

## ② 건강의 개념

건강이라는 말은 다양한 의미를 가지며 질병의 반대명제(antithesis), 균형상태(balanced state), 성장(growth), 기능성(functionality), 적합성이 좋음(goodness of fit), 온전성(wholeness), 안녕(wellbeing), 초월성(transcendence), 강화(empowerment), 자원(resource)을 뜻한다(Sheinfeld-Gorin & Arnold, 2006: 3-17). 건강도시 내의 건강개념은 안녕, 온전성, 균형된 상태, 질병의 반대명제 등의 의미를 포함하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의미로 국한하기가 어렵다.

WHO의 건강개념은 단순히 질병이 없거나 신체적으로 허약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상태(wellbeing)로 정의한다. 안녕상태는 영어로 직역하면 잘(well) 있는 것(being)이다.<sup>6)</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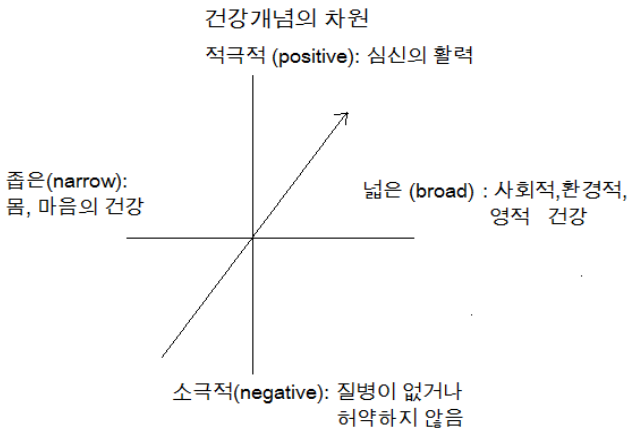
6) 우리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편지 서두에 "안녕하십니까?" 또는 "잘 있습니까?"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신체, 정신, 사회가 잘 있는 것이 건강이다. 잘 있지 못하면 건강하지 않는 것이다. 질병을 "disease"(des- dis- + eise ease) 라고 하는 것도 "편하지 않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http://www.merriam-webster.com/dictionary/disease>).



### ③ 전인건강의 개념

전인건강은 인격체의 건강과 그것을 둘러싼 환경의 건강도 포함한다. 앞서 지적한 WHO의 건강개념에 그 의미가 잘 나타나 있다. 즉 WHO는 건강을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안녕상태(wellbeing)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포괄적인 건강개념을 갖고 있다(Phillips &Verhasselt, 1994: 3).<sup>7)</sup>

건강개념은 다차원의 관점을 가지기 때문에 건강은 소극적 차원에서 적극적 차원으로 좁은 범위에서 넓은 범위로 더욱 확장되고 발전하고 있다. 즉 건강의 범위가 단순히 몸이나 정신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외에 사회적 건강, 환경적 건강도 포함되며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영적 건강도 포함 한다. 건강이 단순히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다는 것 뿐 아니라 적극적 차원의 생활의 향상된 질이나 생활의 활력을 포함한다. 이러한 논의는 <그림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출처: Longest(1988: 2) 재구성

〈그림 1〉 건강개념의 발전

7) 최근에는 영적인 차원의 건강개념을 WHO 현장에 넣으려고 상정했다가 소위원회에는 통과되었으나 총회에서 부결된 적이 있다.

#### ④ 삶의 질 향상과 전인건강의 관계

인격체로서의 인간의 건강은 마음의 건강과 몸의 건강을 포함한다. 광의의 환경의 건강은 사회의 건강과 문화의 건강 그리고 자연 및 시설환경의 건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협의의 환경의 건강은 자연의 건강이나 시설환경의 건강만을 의미한다. 인격체와 환경의 건강을 한마디로 하면 전인건강(holistic health) 또는 총체적 건강(total health)으로 파악 된다<sup>8)</sup>. 이러한 전인건강개념은 인간의 다차원성(multidimensionality)과 유기적인 관련을 맺고 있다(Lyng, 1990: 66). 인간은 생리적 심리적 사회적 환경적 영적 측면을 갖고 있다. 삶의 질은 건강의 시각에서 바라 볼 수 있고 삶의 질 향상의 결과는 건강이며 다차원의 면에서 전인건강이다. 인간은 구체적 영역에서 다양한 생활을 하고 있고 이러한 생활의 질을 높이는 것은 <표 1>과 같이 마음, 몸, 사회, 환경의 건강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

---

8) 전인건강과 관련해서는 Holistic health, Wholistic health, Whole person health, Total health 등 여러 가지 영어 표현을 접할 수 있다. 그 중 Holistic health가 가장 많이 쓰이고 있다. 마음과 몸의 건강 외에 보다 포괄적으로 사회나 환경의 건강을 포함한다. 즉 총체적 건강(total health)을 의미한다. Wholistic health는 마음과 몸의 통일체인 인격체의 건강에 보다 초점을 두는 개념이며, 전 인격체의 건강(whole person health)의 의미와 유사하다. 전인 건강의 범위를 어떻게 규정하며, 그에 따라 어떤 명칭이 더 나올지는 관점에 따라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다. 인격체와 인격체를 둘러싼 사회와 자연 환경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Wholistic health나 Whole person health도 사회나 자연 환경을 포함하여 넓게 정의할 수 있다. 전인 건강과 관련된 영어 명칭으로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한지 계속적으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전인건강은 교육 특히 전인교육의 목표로 인식하면 이해가 쉽다.

〈표 1〉 삶의 질의 각 영역과 전인건강

생활 영역	영적	정신	영양	운동	휴식	의료	예술	청결	관광	봉사
건강 차원	마음	마음	몸	몸	마음 몸	몸	마음	환경	마음	사회

## (2) 건강도시의 개념과 특질 및 지표

### ① 개념과 특질

건강도시(healthy cities)는 도시건강(urban health)과 깊이 관련되어 있는 역동적 개념이다. 건강도시나 도시건강은 세계보건기구 유럽지역의 활동을 통해 보다 발전해 온 적실성 있고 도전적인 분야이다. 많은 연구들과 보고들이 빈곤, 폭력, 사회적 소외, 공해, 낙후된 주거, 노년과 젊은 층의 불만, 노숙자, 잘못된 국토계획, 참여와 불평등요구 및 지속 가능한 개발의 결핍과 같은 증대되는 건강도전을 강조한다. 유럽지역의 건강도시 프로젝트는 그러한 문제들에 대한 총체적 접근의 가치를 보여주어 왔다. 건강도시프로젝트는 분명한 정치적 결단을 포함하는 과정을 통하여 지역수준에서 모든 사람을 위한 건강에 기초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촉진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대중적인 메커니즘이다.

건강都市는 물리적 환경과 사회적 환경을 계속적으로 조성하고 개선하며 도시민이 삶의 모든 기능수행과 최대한의 잠재력 개발에 서로를 도울 수 있도록 하는 그 지역사회의 자원을 확장하는 도시이다.<sup>9)</sup> 간단히 말해서 건강도시

9) "A healthy city is one that is continually creating and improving those physical and social environments and expanding those community resources which enable people to mutually support each other in performing all the functions of life and in developing to their maximum potential([http://www.euro.who.int/healthy-cities/introducing/20050202\\_1](http://www.euro.who.int/healthy-cities/introducing/20050202_1))."

는 시민의 전인건강을 위해 애쓰는 도시이다. 원래의 개념을 다음 <표 2>와 같이 몇 가지 요소로 분석해 보면 그렇게 정의할 수 있다.

<표 2> 건강도시 개념 요소의 분석

환경건강과 사회건강	사회건강과 시설환경(생활조건)	개인건강 (마음건강 몸건강)
is continually creating and improving those physical and social environments	expanding those community resources which enable people to mutually support each other	in performing all the functions of life and in developing to their maximum potential.
물리적 사회적 환경의 조성과 개선	상부상조하게 하는 지역사회지원의 확장	구성원의 삶의 모든 기능과 모든 잠재력개발

건강도시는 시민의 마음, 몸, 사회, 환경의 건강을 위해 애쓰는 도시이다. 시민의 마음과 몸 및 사회와 환경이 잘 있도록 하는 도시이다. 시민의 마음, 몸, 사회, 환경의 고통을 치유하는 도시이다. 건강도시는 도시민의 전인건강 문제해결에 노력하는 도시이다. 건강도시는 도시민의 삶의 질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문제해결의 자원을 확장하는 도시이다. 건강도시는 도시민의 행복, 전인 건강,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도시이다. 건강도시는 행정에 건강개념을 반영하는 도시이다. 그러나 유의할 것은 건강도시는 산물이 아니고 과정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지구상에 완전한 건강도시는 없고 연속선상의 과정에 있고 건강도시의 수준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 높은 수준에 도달 되었다고 머물러 있고 노력 안하면 건강도시가 아니다. 문제가 많은 수준 낮은 도시도

---

건강도시의 영어표현은 "health city"가 아니고 "healthy city"인데 우리말로 건강한 도시라 하지 않고 건강도시로 번역한다. 후자가 전자보다 용어로서 압축성과 건강도시가 과정이라는 점의 뉘앙스를 준다. 김공현(2008: 140)은 풀어서 '건강에 이로운 도시'로 번역하기도 한다.

전인건강을 위해 힘쓰면 건강도시가 될 수 있다. 전인건강의 관점에서 건강도시는 <표 3>과 같이 특질을 갖는다( <http://www.euro.who.int/document/E56270.pdf>).

<표 3> 건강도시의 특질과 전인건강

특질	전인건강관점
주거환경을 포함하여 청결하고 안전한 물리적 환경	환경건강
현재 안정이고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생태체제	환경건강
강하고 상부상조적이며 비착취적인 지역사회	사회건강
시민의 삶과 건강 및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대해 시민이 높은 수준의 참여와 통제	사회건강
모든 시민을 위한 기본욕구(음식물, 주거, 소득, 안전과 직업)의 충족노력	몸, 사회, 환경 건강
다양하고 폭넓은 접촉의 기회와 교류 및 의사소통을 통해 넓고 다양한 경험과 자원의 접근	사회건강
다양하고 활력 있으며 혁신적인 시의 경제	사회건강
도시의 과거와 거주자의 문화적 생물학적 유산과 함께 다른 집단과 개인들의 연결을 격려	사회건강
이전의 특성과 양립하고 고양할 수 있는 형태	사회, 환경의 건강
모든 사람에게 접근 가능한 적절한 수준의 국민건강 및 질병치료 서비스	몸건강
고도의 건강상태(높은 수준이 적극적 건강과 낮은 수준의 질병)	마음, 몸의 건강

출처: WHO(1997), Twenty steps for developing a Healthy Cities project의 재구성

## ② 건강도시의 지표

건강도시의 지표는 입장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WHO에서 발전해 온 지표는 <표 4>와 같다.

〈표 4〉 건강도시의 지표

범주	항목
건강	사망률, 주요 사망원인, 저체중 출산
건강서비스	시간건강교육프로그램, 예방접종비율, 일차보건의료진의 비율, 간호사의 비율, 건강보험수혜자의 인구비율, 외국어 서비스의 활용, 시의회의 건강의 논의
환경적 지표	공기오염, 수질, 하수도처리, 가정쓰레기 수집과 처리, 녹지 공간, 버려진 산업부지, 스포츠와 여가시설, 산책, 자전거도로, 대중교통의 접근성, 대중교통의 범위, 거주공간
사회경제적 지표	부적합한 주거인구비율, 노숙자의 비율, 실업자의 비율, 빈곤층의 비율, 타아의 이용률, 출산연령, 낙태율, 장애인 고용

출처: <http://www.euro.who.int/document/hcp/ehcquest.pdf>

### ③ WHO 건강도시 프로젝트

건강도시의 아이디어는 앞서 언급했듯이 1984년 토론토에서 「건강의료를 넘어(Beyond Health Care)」라는 주제로 열린 회의에서 비롯되었다. 이것은 도시가 인구집단에 가장 가까운 거버넌스(협치: 민관협력의 행정)의 수준을 갖고 있으며 건강에 미치는 요인에 가장 잘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개념에 기초한 것이었다. 이러한 아이디어에 대한 실질적인 관심은 2년 후에 만들어졌고 WHO가 건강과 적극적인 건강정책(positive health policy)을 촉진하고 좋은 모범사례를 개발하기 위해서 유럽도시들이 시범사업을 지원했다. 그 아이디어는 한시적인 것(1987-1992)이었다. 시범사업을 11개 도시에 시작한 후에 WHO는 그것이 운동을 일으켜왔다는 것을 발견했다. 유럽에서는 처음 5년간 35개 건강도시가 그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20 개국에서 국가적 연결망이 발전되었고 특별한 주제나 관심에 근거하여 12개 그룹의 시가 다중시 행동 계획(multi-city action plan)으로 출발하였다. 이러한 시범사업에 참여한 도시들은 일정한 수준의 건강에 도달되었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의 프로젝트 대상의 도시는 아니었다. 그 도시들은 스스로 보다 건강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을 이해했다. 그 프로젝트를 한 도시들은 특정한 분야의 활동을 통해서 이것을 증명해 왔다. 즉 도시의 건강을 위해 일하는 정치적 결단의 수행, 시의 건강쟁점에 대한 가시적인 자료제시, 조직부서간의 일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기 위한 제도적 변화의 실행, 건강과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한 혁신적인 단계적 행동을 포함하는 것이었다. 건강도시 프로젝트는 만인을 위한 건강의 전략적 효과를 위한 WHO의 주요한 수단의 하나이다. 그것은 정치적, 전문적, 기술적 연합을 도출해내고 지역수준의 활동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나타내 주었다. WHO 건강도시프로젝트는 <표 5>와 같이 4기에 걸쳐 진행해 오고 있다.

〈표 5〉 WHO 1-4기 건강도시 프로젝트

기간	강조점	참가 도시수
제 1 기 (1987-1992)	변화역군으로 행동하고 건강도시를 위해 일하는 새로운 방법을 위한 새로운 구조 창설, 조직과 부서들 그리고 지역사회 간에 협동적 노력을 위한 구조와 과정 개발, 기획과정에 있어 건강을 반영하는 진정한 통합적인 접근법 개발	35개
제 2 기 (1993-1998)	건강한 공공정책(healthy public policy)과 종합적인 도시 건강계획, 만인을 위한 건강을 목표로 하는 도시정책의 형성과 집행, 공정성, 지속가능한 개발과 같은 쟁점에 대처하는 분명한 목표를 가진 종합적인 도시건강 계획(comprehensive city health plans) 개발	39개 (1기의 13개)
제 3 기 (1998-2002)	건강발전을 위한 통합적인 기획에 대한 초점을 가지고 형평성, 지속가능한 개발과 사회발전	50개
제 4 기 (2003-2008)	종합적인 방법으로 건강개발에 대처하고 에너지와 자원을 집중하기 위한 파트너십과 건강결정요인과 및 거버넌스, 건강영향평가(health impact assessment)와 건강도시기획(healthy urban planning)의 주요 주제와 및 건강한 노령화(healthy ageing)의 보조주제에 대한 지식과 전문성을 개발하기 위한 WHO와 작업파트너	56개

#### (4) 외국의 건강도시의 현황

##### ① 유럽의 건강도시

건강도시운동은 지금 세계전역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유럽에서 시작이 되었고 그 지역이 가장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역사와 경험 및 사례들이 가장 풍부하다.

유럽의 국가 건강도시네트워크(National Health Cities Network)는 건강도시의 참여에 대한 도시의 강한 요구에 대한 자발적 반작용으로 발전했다. 1987년 WHO가 11개 시범도시와 함께 건강도시프로젝트를 시작했을 때 그것은 급격히 팽창했고 크게 가시화 되었다. 오늘날 국가 건강도시네트워크는 WHO 유럽 지역에서 30개 이상의 나라에서 1,200 개 이상의 도시와 마을이 참여하고 있다(<http://www.euro.who.int/healthy-cities>).

##### ② 미국의 건강도시

미국은 1987년 WHO의 건강도시 개념을 주창한 지도자들에게서 자극받아 미국의 건강부서 공무원들이 미국에서도 건강도시 네트워크를 촉진하는 데 노력하기로 결정했고 캘리포니아 건강도시 프로젝트와 인디애나와 콜로라도의 건강도시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다(Twiss et al, 2000; Adams, 2003; Flynn et al., 1991; Murray, 2000 ).

1998년부터 2003년 사이 캘리포니아 건강도시 지역사회 프로그램(California Healthy Cities and Communities Program: CHCC program )이 69개의 도시와 지역사회에서 실행되었다. 이 프로그램의 영향으로 개인, 시민참여, 조직, 조직간의 관계, 전체로서의 지역사회, 지속가능성의 변화, 증가된 사회의 역량을 변화시키는데 영향을 미쳤다. 공공장소에서 금연을 하게 하는 것은 미국의 건강도시운동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인디애나 건강도시 프로젝트는 인디애나 간호대학에서 일차 보건(primary



health care)을 건강도시개념과 연결한 트레브 핸콕(Trevor Hancock)의 강의에서 비롯되었다. 그는 왜 인디애나 폴리스가 건강도시가 되지 못하는가(Why doesn't Indianapolis become a healthy city)?라는 물음에 대해 강의했다. 비브리 플린(Beverly Flynn)은 지역사회간호의 일차 보건에 기초하여 지역사회의 수요를 맞추고 일관된 대학원 교과과정을 맞추기 위해 통찰력을 가지고 이를 위해 노력했다(Knollmueller et al., 2005: 180-185). 그녀는 지역사회의 파트너십, 지역사회 건강증진, 지역사회 발전, 학제적 노력, 참여 평가 등에 특별한 관심을 가졌다. 인디애나는 실험도시로 인디애나 폴리스(Indianapolis), 개리(Gary), 재퍼슨빌(Jeffersonville), 루이스빌(Louisville), 포트웨인(Fort wayne), 사모어(Saymore), 뉴캐슬(Newcastle)등 과 같이 여섯 개 도시에 관심을 가지고 출발했으며 나중 3 곳은 현재 진행 중이며 그 중에 뉴캐슬이 활발한 편이다.

### ③ 아프리카

아프리카의 건강도시는 그곳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국제회의가 1997년 남아프리카 프리토리아에서 열렸다. 1999년 아프리카 지역 사무소에 의해 아프리카 전역에 건강도시네트워크가 형성되고 도시화와 건강이 아프리카에 아주 중요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아프리카의 도시화의 비율이 37.3%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아프리카의 빈곤과 열악한 환경이 큰 도전이 되어왔다. 아프리카의 건강도시 사례는 1993년 요한네스 버어그(Johannesburg) 건강도시프로그램에 이어 1996년의 케이프타운(Cape Town) 프로그램, 2001년의 모잠비크(Mozambique) 건강도시 프로그램 등을 들 수 있다(<http://www.afro.who.int/eph/publications/healthy-cities>).

### ④ 서태평양 지역의 건강도시

건강도시 연맹은 서태평양 지역의 건강도시에 대한 국제적 노력에 기초해서 만들어진 네트워크이다. 회원들은 도시정부, 국가, NGO, 사부문, 학술

단체, 국제기관이 대상이 된다. 건강도시 연맹은 2003년 10월 17일 필리핀 마닐라의 서태평양지역 WHO 사무소에서 개최된 첫 번째 모임에서 창설되었다. 첫 모임의 참여자들은 시, 국가 코디네이트, NGO, 서태평양 지역 건강도시 프로그램에 종사하는 학술연구소들이었다. 2004년 10월 12-14일 말레시아 사라왁 쿠칭시에서 창립총회를 열었다. 그 시의 시장, 도지사, 시공무원, 국민 건강과 도시기획 전문가, NGO, 학술기관, 국내외 지도자들이 건강도시 연맹을 창설을 축하하기 위해 모였다. 이 연맹은 건강도시 접근법을 지지하며 건강도시 연맹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그 구성도시나 조직들이 건강도시 접근법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협력하고 고무되기를 원한다. 한 시나 한 사람에게 의한 경험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지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구성원들이 그러한 경험을 쌓으면 도시나 마을의 거주자들의 건강을 개선하기 위한 큰 도구가 된다.

그 연맹은 짧은 역사와 대조적으로 서태평양지역의 건강도시 활동은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호주의 일라와라(Illawarra)는 1987년에 건강도시 활동이 시작되었다. 서태평양지역 시와 다른 집단들이 건강도시프로그램(healthy cities program)을 시작해왔다. 그 지역에서 건강도시 프로그램을 가진 도시들과 집단은 100곳 이상이 되었다. 그 연맹은 시와 도시의 NGO, 대학, 국가기관, 사기업 부문 등으로부터 원서를 받는다. 보다 많은 시들과 조직들이 가입하고 있으며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시는 정회원으로 그 외 단체는 준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다. 서태평양 지역 29개국 중 9개국에서 WHO 서태평양지역 건강도시연맹에 가입한 회원이 2008년 현재 121 개 회원이고 그 중 준회원을 21개 단체를 뺀 나머지 정회원 도시는 100개이다.<sup>10)</sup>

우리나라는 서태평양지역 건강도시연맹에 가입한 회원수가 <표 6>과 같이 48개 도시에 이른다. 올해는 전국적으로 21개 시군구가 가입을 했다. 경북의 안동시, 전남의 완도군, 전북 무주군, 충남의 아산시 부여군, 충북의

10) ([http://alliance-healthycities.com/htmls/members/index\\_members.html](http://alliance-healthycities.com/htmls/members/index_members.html)). 각 나라의 회원도시의 수는 호주 5개, 캄보디아 1개, 중국 21개, 일본 12개, 말레이시아 1개, 몽고 1개, 필리핀 10개, 베트남 1개, 한국 48개이다.

제천시·진천시, 강원도의 동해시·속초시·태백시·양구군, 경기의 광명시·시흥시·의왕시·양평군, 서울의 강동구·서초구·송파구·영등포구, 광주·남구·서구가 해당된다. <표 6>에서처럼 매년 WHO 건강도시연맹에 가입하는 도시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16)와 기초자치단체(230)를 합쳐 모두 246곳인데 이 중에 48곳이 건강도시연맹에 가입되어있다는 것은 5분 1이 가입된 것이고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이것은 앞에 살펴본 다른 나라에 비하면 증가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 이것은 긍정적으로 보면 뜨거운 열의라 해석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내실이 부실하다는 부정적인 면이 나타나 있다.

〈표 6〉 우리나라의 건강도시 가입현황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서울특별시 창원시 원주시 부산진구	제주도 강남구 성동구 도봉구 남해군 금산군 연기군	부산광역시 진주시 진주시 서산시 서울 동작구 서울 광진구 서울 성북구	춘천시 화성시 순천시 울산북구 장흥군 서울 서대문구 서울 중구 서울 구로구 광주 동구	아산시 안동시 동해시 광명시 무주군 부여군 양구군 양평군 완도군 진천군 의왕시 제천시 속초시 시흥시 서울 광동구 서울 강동구 서울 서초구 서울 송파구 서울 영등포구 광주 남구 광주 서구
4개	7개	7개	9개	21개

## 2. 건강도시에 대한 생활행정학의 관점

### (1) 생활행정학의 관점

행정학은 행정현상에 관한 체계적 연구 또는 지식이다. 학문으로서 행정학의 목적은 학자의 세계관의 영역으로 행정학의 목적을 행정현상의 이해와 설명에 국한하는가의 여부는 학자의 주관에 속한다.

행정(public administration)의 어원은 봉사하다(ministrare: to serve)에서 나왔다(조무성, 2002:20). 봉사는 결국 그 뿌리가 이웃사랑에 있다. 이것은 신학과 만날 수 있는 연결고리이다. 신학은 하나님 사랑과 함께 이웃사랑을 동전의 양면으로 다루기 때문이다(마가복음 12:30-31, 조무성, 1989). 행정학의 목적이 결국 삶의 질의 향상에 있으며 여기에 초점을 둔 행정학의 관점을 생활행정학의 패러다임으로 제시하여 그 특성을 <표 7>에 정리하였다(조무성, 1998, 1999, 2001, 2002, 2006).

〈표 7〉성장기 행정학과 생활행정학의 특성비교

	행정학의 차원	성장기 행정학(1956-2005)	성숙기 행정학: 생활행정학(2006)
세계관 차원	학문의 목적	행정현상의 이해와 설명	국민의 삶의 이해와 설명 및 삶의 질 향상
	학문의 동기	공리주의적 자기사랑	봉사하는 이웃사랑
	연구지향	경험적, 처방적 연구지향의 우세, 특정경향의 소논문위주	규범적·경험적·처방적 연구지향의 종합, 중편 논문활용
	타학문의 원용	각 학문과 전공간의 협력 미흡, 특정한 이론에 편중	다차원적인 접근법, 학문과 전공간의 협력증진 자연과 학과도 학제적 접근
	타학문과의 유대	타학문과의 유대관계 약함	생활학문공동체 지향. 생활과 생활의 질을 매개로 타학문간의 교류와 협력 활발. 같은 철학으로 생활학문공동체형성, 생활정치학, 생활경제학, 생활경영학, 생활가정학 등의 연결

	행정학의 차원	성장기 행정학(1956-2005)	성숙기 행정학: 생활행정학 (2006)
이론적 차원	연구대상	정부조직과 정부 밖의 한정된 공공문제들	정부조직과 환경으로 구성된 생활공간과 다양한 문제
	연구초점	행정현상의 분석을 위해 특정 분야의 이론에 몰두하므로 다양한 이론 간의 통합적 시각결여. 적실성이 미흡한 이론의 개발	통합적 시각에서 삶의 질 향상과 공공문제해결에 몰두함으로써 적실성 있는 이론의 개발
	보편성과 특수성의 관계	보편성과 특수성의 연결고리가 약함. 보편이론의 개발과 한국 행정의 특수성의 반영의 미흡	보편성과 특수성의 연결고리가 강함. 보편이론의 개발과 한국행정이론의 특수성 반영
	이론적 토대	사회철학(행정이념, 행정윤리), 조사방법론(양적 방법론), 행태과학	철학적 인간학(인간과 삶의 의미와 본질), 사회철학, 행태과학, 생태학(유기체와 환경과학), 질적양적 방법론
	방법론	실증주의와 반실증주의의 양극화 계량적 방법 다수 질적 방법 소수	실증주의와 비실증주의(현상학, 비판이론)의 종합. 감정이입, 사례분석 등의 질적 방법도 중시
교육적 차원	교육의 목적과 방법	철학과 과학 및 처방의 연계와 균형이 부족	국민생활의 이해와 개선을 위한 철학, 과학, 처방의 연계
	교과과정	규범적 과목, 경험적 과목, 처방적 과목의 균형의 결여	규범적 과목(행정철학, 행정윤리, 헌법, 행정법), 경험과목(조직, 인사, 재무, 정책, 도시, 지방, 국제, 정보, 복지), 처방과목(개별정책, 관리기술, 조사방법) 등의 균형
	실습과목	실무수습(internship)의 결여, 봉사정신의 함양 프로그램결여	실무수습의 프로그램, 의무적인 봉사활동
	기초와 전공의 핵심과목의 범위	기초: 조사방법 전공: 조직, 인사, 재무, 정책	행정철학, 행정사, 인간과 환경을 기초 핵심과목에 포함. 옆의 것 외에 환경, 복지, 건강, 도시, 지방, 국제 행정, 정부와 가정의 관계 등을 전공핵심과목에 포함
	전문성의 제고와 자격증	일반기 초점. 자격증에 대한 고려미흡	몇 개의 전공군으로 선택. 전문가적 안목 키움. 자격증 시험(조직진단사, 인력관리사, 사회행정사)

	행정학의 차원	성장기 행정학(1956-2005)	성숙기 행정학: 생활행정학(2006)
적 실 성 차 원	지식수요자	학자와 학생	학자와 학생, 시민과 공무원
	생명에 관한 문제	생명에 대한 부분에 대한 관심과 연구의 미흡	인간의 생명과 생태계의 생명현상에 대한 깊은 관심과 정책적 연구
	뉴스에 대한 관심	뉴스에서 다루어지는 문제에 대해 학문적인 연결과 관심 미흡	뉴스에서 다루는 문제를 문제 해결역동모형으로 이해,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
	이론과 실무의 연결	학자와 실무자간의 대화결여	학자와 실무자간에 서로의 장점과 한계를 인정하며 대화를 추구
	현실비판과 대안 탐색	편향된 연구지향으로 현실비판과 대안의 결여	종합적 연구지향으로 현실비판과 대안 제시

사회과학내의 생활이나 삶의 질에 대해 학문의 관심은 일상생활을 강조하는 사회학에서 일찍이 있어 왔고 경영학에서 녹색산업과 녹색마케팅을 통해서 관심을 가지고 다루고 있다(Berger & Luckman, 1966, 박재환 외, 1996, 강수택 1998,; Shrivasta, 1996; Ottmann, 2004).

생명정치학(biopolitics)이라는 정치학분야에서 최근 들어 더욱 관심을 보이고 있다(Bashford, 2006; Carmen, 1997; Johh & Hibbing, 2008; Somit & Peterson, 1999). 생명정치학이라는 용어는 정치학에 생명과학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모리 로버츠(Morley Roberts, 1938)가 그의 책 『Bio-Politics: An Essay of Physiology, Pathology, Politics of Social and Somatic Organism』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생명정치학은 정치학 내의 접근법으로서 1) 진화의 역사에서 사회적이며 정치행태적 성향을 유전적으로 물려받는 인간관, 2) 피로, 질병과 같은 생리적 요인의 정치행태에 대한 영향, 3) 정치태도나 잠재적 행태의 지표로서 생리적 측정(목소리의 강도, 눈 깜박이는 비율의 활용), 4) 낙태, 환경오염과 같이 생물학적으로 관련된 정책이슈

의 네 가지 영역 중 한 가지 이상을 다루는 입장이다(Somit & Peterson, 1998: 561-562, 1999: 43, Meyer-Emerick, 2007: 691). 행정학 분야에서는 이러한 생명정치학의 재조명을 통해 행정학과 연결 가능성을 강조한다. 마이어 에메릭(Meyer-Emerick, 2007: 694-704)은 행정학자들이 생명정책이슈(biopolicy issue)에 관심을 가지고 학문적 준비를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는 많은 행정학자들이 "생명행정학(bioadministration)"을 연구하고 수행하지만 아직 학문의 정체성(academic identity)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하지만 생명정치학이 정치학에 근거해 있을지라도 행정학에 적용될 수 있는 광범위한 분야와 방법론을 포함하기 때문에 생명정치학을 행정학의 관료제, 인간성, 조직행태, 정책의 네 가지 영역으로 연결 지워 설명하고 있다. 특히 정책의 영역에서 개인 집단 세계의 분석수준에서 생물학과 관련된 정책이슈의 영역을 설명하고 있다. 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면 <표 8>과 같다.

〈표 8〉 분석수준에 따른 생명정책(biopolicy)의 이슈 영역

개인적 관심영역	유전적 개입 (유전자 검사, 유전자 치료)	출생전 개입 (낙태, 태아 연구)	생의 주기 이슈 (영양, 인간실험)	죽음관련과정 (말기질환, 자살개입)
사회적 관심영역	인구통제, 성차별, 노화, 생물재해(bio-hazards), 유전과 환경(nature-nurture)의 논쟁			
지구적 관심영역	생명공학기술 관련 이슈, 기후변화			

사실 이러한 생명정책 이슈들은 국민의 삶의 질과 긴밀하게 연결되며 특히 포에서 제시한 생활행정학의 특성 중 적실성 차원에서 생명의 문제를 다루는 것과 직결된다. 마이어 에메릭(Meyer-Emerick, 2007: 704)은 행정학자와 실무가들이 항상 생명정치학과 관련되어 왔으며 생명정치적인 지식 없이 생명이슈에 대해 윤리적인 대화를 하거나 정책결정을 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

가 있기 때문에 행정학에서 이러한 논의는 적절하고 필요하며 행정학은 생명 과학으로부터 배울 점도 많고 가르칠 점도 많다는 것을 역설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생활행정학은 인간 삶의 질과 현실에 초점을 두어 국민이 고통 받는 문제의 해결에 대한 메커니즘의 이해와 지식의 제공에 초점을 두고 있다. 생활행정학은 안팎의 도전에 직면한 행정학문공동체의 환경에 적응하고 내부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성숙기 행정학의 패러다임으로 제시된 것이다. 행정학회는 2006년에 50주년을 맞이하여 행정학의 회고와 전망 및 과제에 대해 보다 심도 있게 다루었다. 그동안 행정을 연구하는 학문공동체의 선배들과 동료들 및 후배들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많은 업적이 축적되어 행정학은 큰 발전을 보았다. 여기에 힘입어 행정학은 발아기에서 성장기를 거쳐 이제 성숙기에 입문하는 단계에 들어섰다고 여겨진다(조무성, 1998, 2002, 2006).<sup>11)</sup> 행정학문공동체가 급격한 환경변화, 사회문제의 양적 증대와 질적 심화의 가속화, 국가기능과 행정실제의 변화의 가속화, NGO의 역할증대라는 환경에 적응하고 행정학의 정체성과 적실성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제시되었다(조무성, 1998, 1999, 2002).

생활행정학은 삶의 질에 초점을 두는 사회과학의 한 분야로서 생활공간 속에서 일어나는 행정현상에 관한 체계적 연구 또는 지식이다(Rudner, 1966:

11) 여기에는 견해를 달리할 수 있다. 이종범(2006: 29-30)은 1990년대 이후 현재까지를 창조태동기로 보면서 아직 성숙기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한다. 성숙하다는 것은 나무의 열매가 익어가는 것이다, 나무에 모든 열매가 한꺼번에 익을 수 없고 한 두 개씩 익으면서 점차 많아지는 것이다. 그동안 훌륭한 선배학자들이 견인차가 되어 익은 열매가 조금씩 많아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2005년 추계 행정학회에서 경제학회, 사회학회, 교육학회, 언론학회, 심리학회의 전임회장들과 정치학회의 현회장이 함께 "한국화 담론의 학문적 의의와 과제"를 토론함으로써 행정학의 학제적 접근을 시도한 시간을 가졌고 뜻있는 학자들이 봉사정신으로 NGO 활동을 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에 와서는 많은 학자들이 정부에 참여하여 정책적 조언을 했다. 영문 잡지를 통해 국제화의 시도를 계속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아시아와 유럽의 학자들이 함께 모여 토론을 하면서 보편성의 지평을 넓혔다. 이러한 징조들을 종합하여 성숙기의 문턱에 서있다고 판단한다.



7-8; 조무성, 1998). 생활행정학에서 본 행정은 생활공간에서 일어나는 사건으로부터 정부 또는 그 하위단위가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는 역동적 과정 또는 활동이다(조무성, 1998, 2002). 생활행정학의 목적인 국민의 삶의 질 향상 곧 전인건강을 행정개념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면 <표 9> 와 같다. 12) 표의 내용 중 "사무를 관장한다."를 "문제를 해결한다."로 바꾸어서 생각해보면 행정의 개념과 정부의 할 일이 훨씬 명확해진다.

<표 9> 생활행정학에서 본 15개 부처의 행정개념

행정 각부	문제해결의 구체적 내용	건강 차원
기획 재정부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경제·재정정책의 수립·총괄·조정, 예산·기금의 편성·집행·성과관리, 화폐·외환·국고·정부회계·내국세제·관세·국제금융, 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국유재산·민간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문제를 해결한다)	사회건강
교육과학 기술부	인적자원개발정책, 학교교육·평생교육, 학술에 관한 사무와 기초과학 정책·연구개발, 원자력, 과학기술인력양성 그 밖에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마음건강 사회건강
외교 통상부	외교, 외국과의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조정, 국제관계 업무에 관한 조정, 조약 기타 국제협정, 재외국민의 보호·지원, 재외동포정책의 수립, 국제정세의 조사·분석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사회건강 환경건강
통일부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통일교육 기타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마음건강 사회건강
법무부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사회건강
국방부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그 밖에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사회건강 몸건강

12) 정부조직법 23조-37조.

행정 각부	문제해결의 구체적 내용	건강 차원
행정 안전부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공무원의 인사·윤리·복무·연금, 상훈, 정부혁신, 행정 능력, 전자정부 및 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재정·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 선거, 국민투표, 안전관리 정책 및 비상대비·민방위·재난관리 제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사회건강 환경건강
문화체육 관광부	문화·예술·영상·광고·출판·간행물·체육·관광에 관한 사무와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사회건강 마음건강 몸건강
농수산 식품부	농산·수산·축산, 식량·농지·수리, 식품산업진흥, 농어촌개발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사회건강 몸건강
지식 경제부	상업·무역·공업, 외국인 투자, 정보통신산업,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에너지·지하자원, 우편·우편환 및 우편단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사회건강 환경건강
보건복지 가족부	보건위생·방역·의정(醫政)·약정(藥政)·생활보호·지활 지원 및 사회보장, 아동(영·유아 보육을 포함한다)·청소년·노인·장애인 및 가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몸건강 마음건강 사회건강
환경부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보전 및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환경건강 몸건강
노동부	근로조건 기준, 직업안정, 직업훈련, 실업대책,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근로자의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그 밖에 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사회건강 몸건강
여성부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사회건강
국토 해양부	국토종합계획의 수립·조정, 국토 및 수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 도시·도로 및 주택의 건설, 해안·하천·항만 및 간척, 육운·해운·철도 및 항공,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자원개발, 해양과학기술연구·개발 및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사회건강

## 2) 생활행정학과 건강도시연구와의 관계

행정과 건강도시가 긴밀한 연관이 있듯이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둔 생활행정학과 건강도시연구는 긴밀한 연관성이 있다. 행정학자가 건강도시 연구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건강도시연구는 행정실체에 있어 행정의 본질과 목적에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행정의 본질은 기술한 바와 같이 어원적으로나 헌법의 규정으로 볼 때 국민에 대한 봉사이다. 국민에게 봉사한다는 것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민의 문제를 정확히 진단해서 효과적으로 그리고 능률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앞에서 제시한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의 건강도시프로젝트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이 모여 있다.

둘째, 건강도시는 국민 생활의 고통을 감싸는 민생행정 곧 생활행정의 원천이다. 행정서비스를 국민의 피부로 느끼게 하는데 크게 기여한다는 점이다. 건강도시의 프로젝트는 이 땅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셋째, 행정학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삶의 질 향상이라는 행정학의 궁극목적에 부합되며 사회과학 부에서 느끼는 정체성의 위기를 돌파하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건강도시를 연구대상을 할 때 규범적·경험적·처방적인 종합적인 연구지향을 통해 행정학의 적실성을 높이고 다른 학문분야와 연결이 보다 쉬워지기 때문이다. 건강도시는 도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도시를 진단하고 그 원인을 토대로 처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도시건강이라는 규범적인 성격과 진단이라는 경험적 탐구와 해결책이라는 처방적 연구가 뒷받침된다.

넷째, 건강도시에 대한 학제적인 집중 연구와 행정의 총체적 노력은 그동안 실패한 개혁의 방향을 바로 잡고 개혁의 열매를 맺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건강도시는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도시공동체 구성원의 공통의 목적이다. 개혁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최대한 줄이고 공통분모를 향해 힘을

집중할 수 있게 한다(조무성, 2006, 2008).

다섯째, 건강도시연구는 세계화와 지역화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건강도시 연구는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 단순히 이론이 아니고 현실 속에서 그 이론을 처방으로 바꾸는 실천적인 노력이 뒷받침 되어 있다. 건강도시는 유럽, 미국, 아프리카, 서태평양 지역에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역사적 산물이다.

건강도시는 기존의 성장기 행정학(1971-2005)을 생활행정학으로서의 행정학의 관점인 성숙기 행정학(2006-)으로 발전하는 동인이 될 수 있다. 건강도시가 핵심적으로 추구하는 가치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행정이 추구하는 본연의 자세와 부합되고 행정학이 추구하는 궁극적 목적과 일치한다. <표 10>은 건강도시와 건강도시프로젝트가 생활행정학의 각 차원에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정리한 것이다.

행정학자들의 생활행정학의 세계관 차원에서, 이론적 차원에서, 교육적 차원에서, 적실성 차원에서 건강도시와 건강도시프로젝트는 중요한 함의를 가질 것이다. 현재의 행정학이 갖는 정체성의 위기를 극복하고 봉사의 학문으로 거듭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0〉 생활행정학과 건강도시와의 연계성

	행정학의 차원	생활행정학: 성숙기 행정학(2006- 건강도시 관점과 연결 근거
세계관 차원	학문의 목적	국민의 삶의 이해와 설명 및 삶의 질 향상 도시는 삶의 현장이며 건강도시는 삶의 질 향상에 초점
	학문의 자세	봉사하는 자세 건강도시는 파트너십을 강조하고 상대방 인정
	연구지향	규범적·경험적·처방적 연구 지향의 종합, 중편 논문활용 건강도시의 문제해결은 철학과 현실분석 및 처방이 어울려 있음
	타학문의 원용	다차원적인 접근법, 학문과 전 공간의 협력증진 자연과학과도 학제적 접근 건강도시는 행정학 내의 도시행정, 환경행정 등 다양한 분야는 물론 사회학 경제학 복지 의학 건축 등 다양한 학문과의 협력이 요구
	타학문과의 유대	생활학문공동체 지향. 생활과 생활의 질을 매개로 타학문간의 교류와 협력강화와 같은 철학으로 생활학문공동체형성, 생활정치학, 생활경제학, 생활경영학, 생활가정학 등의 연결 건강도시에 참여하는 다른 사회학, 인문학, 자연과학의 궁극목적도 결국 삶의 질 향상으로 유대 가능
이론적 차원	연구대상	정부조직과 환경으로 구성되는 생활공간과 다양한 문제 도시 속에는 수많은 다양한 문제가 발생함
	연구초점	통합적 시각에서 삶의 질의 향상과 공공문제해결에 몰두함으로 적실성 있는 이론의 개발 도시 속에서 공동체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며 현실에 적합하지 않은 이론은 생존불가능
	보편성과 특수성의 관계	보편성과 특수성의 연결고리가 강함. 보편이론의 개발과 한국 행정이론의 특수성반영 건강도시는 세계 각국에서 추진해 오고 있으며 그 나라의 문화에 따라 차이. 우리나라도 문화적 특수성 존재
	이론적 토대	철학적 인간학(인간과 삶의 의미와 본질), 사회철학, 행태과학, 생태학(유기체와 환경학), 질적양적 방법론 건강도시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철학과 인간의 행동에 대한 설명 및 환경생태에 관한 학문이 기본임
	방법론	실증주의자와 비실증주의(현상학, 비판이론)의 종합, 감정이입, 사례분석 등의 질적 방법 건강도시는 양적인 접근과 함께 사례 연구 등의 질적 접근도 함께 필요

교육적 차원	교육의 목적과 방법	국민생활의 이해와 개선을 위한 철학, 과학, 처방의 연계	학생들에게 현실을 이해하고 개선할 수 있는 지식제공
	교과과정	규범적 과목(행정철학, 행정윤리, 헌법, 행정법), 경험과목(조직, 인사, 재무, 정책, 도시, 지방, 국제, 정보, 복지), 처방과목(개별정책, 관리기술, 조사방법) 등의 균형.	건강도시는 종합적 연구지향에 입각한 교과과정이 필수
	실습과목	실무수습의 프로그램, 의무적인 봉사활동	건강도시는 학생들이 현실에 행정학도로 익혀야 할 실무지식을 요구하고 봉사와 직결
	기초와 전공의 핵심과목의 범위	행정철학, 행정사, 인간과 환경을 기초과목으로 환경, 노동, 건강, 복지, 경제, 도시, 지방 국제행정, 행정윤리, 행정정보관리, 정부와 가정의 관계 등도 중요	건강도시는 환경이나 사회의 개선과 건강한 가치가 핵심적인 개념이기 때문
	전문성의 제고와 자격증	몇 개의 전공군으로 선택. 전문가적 안목 키움. 자격증시험(조직진단사, 인력관리사, 사회행정사)	건강도시는 타 분야에 비해 차별화 될 수 있는 전문지식과 자격의 요구
적실성 차원	지식수요자	학자와 학생, 시민과 공무원	건강도시는 도시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행정에 대해 알아야 하고 수요자
	생명에 관한 문제	인간의 생명과 생태계의 생명현상에 대한 깊은 관심과 정책적 연구	건강도시는 인간의 생명의 존엄을 기초로 하며 생태계 보호를 중시함
	뉴스에 대한 관심	뉴스의 문제를 문제해결역학 모형의 이해와 삶의 질의 향상에 대한 관심	건강도시는 일어나는 뉴스는 도시의 사건이 됨
	이론과 실무의 연결	인간의 생명과 생태계의 생명현상에 대한 깊은 관심과 정책적 연구	건강도시는 이론가들과 실무자가 함께 만나 대화와 토론
	현실비판과 대안	종합적 연구지향으로 현실비판과 대안 제시	건강도시는 완성된 작품이 아니며 환경에 적응하며 변화되어야 하기 때문

### 3. 생활행정학의 관점의 건강도시 사업

이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청계천 복원사업과 2008년 3회 서태평양 지역 건강도시 연맹 총회에서 발표된 사업내용을 외국과 우리나라로 나누어 국가별로 살펴보고자 한다(AFHC, 2008b, 2008a). 생활행정학의 핵심개념이 전인건강차원에서 정리해 보려고 한다. 물론 이러한 사업은 행정조직 특히 지방행정조직을 통해서 수행된다.

#### (1) 청계천 복원사업

청계천 복원사업은 우리나라가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대표적 건강도시 사업이다. 이명박 시장 당선자에 의해 2002년 6월 17일 시장직무인수위원회가 구성되었다.<sup>13)</sup> 이 때 청계천 복원사업의 추진방향의 골격이 마련되었는데 이명박 당선자의 공약으로 제시한 국가적 사업의 인식, 각계각층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관 합동시민회의 설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 교통, 민원 대책 등 분야별로 서울시의 사전준비를 촉구하는 것이었다.

이명박 시장은 7월 2일 서울시에 복원추진본부를, 7월 4일 서울 시정연구원 내에 청계천 복원연구단을, 9월 18일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 구성 및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라 시민위원회를 각각 구성하여 삼각추진체제를 출범시켰다. 이것은 민관협력의 거버넌스 시스템이었다(황기연, 2005: 121-124).

이러한 삼각추진체제는 실질적인 문제해결주체인 서울시와 환경 속에 있는 이해관계자인 시민들 간에 합의를 이루고 상반되는 방향을 극소화시키며 문제해결의 힘의 방향을 수렴하고 상생의 관점에서 문제해결의 힘을 축적하기 위해 애를 썼다(황기연, 2005: 123-132). 2003년 서울시 청계천 복원사업의

13) 여기에는 이재오 의원이 위원장으로, 조광권 선거캠프 정책팀장이 간사로 참여했고, 청계천 살리기 연구회의 핵심구성원인 연세대 노수홍, 교원대 정동양, 한양대 원제무, 서울대 양윤재가 포함되었다.

청사진인 기본계획안이 발표되었다. 청계천 복원사업을 건강도시의 특질에 따라 평가해 보면 <표 11>과 같다(조무성, 2005).

〈표 11〉 청계천 복원사업의 성과

건강도시의 특질	건강차원	복원사업의 평가
주거환경을 포함하여 청결하고 안전한 물리적 환경	환경 건강	긍정
현재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생태 체제	환경건강	긍정
강하고 상부상조적이며 비착취적인 지역사회	사회건강 (마음건강)	숙제
시민의 삶과 건강 및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대해 시민의 높은 수준의 참여와 통제	사회건강	긍정과 부정
모든 시민을 위한 기본욕구(음식물, 주거, 소득, 안전과 직업)의 충족노력	사회건강	숙제
다양하고 폭넓은 접촉의 기회와 교류 및 의사소통을 통해 넓고 다양한 경험과 자원의 접근	사회건강	긍정
다양하고 활력 있으며 혁신적인 시의 경제	사회건강	숙제
그 시의 과거와 시 거주자의 문화적 생물학적 유산과 함께 다른 집단과 개인들의 연결을 격려	사회건강	긍정
이전의 특성과 양립하고 고양할 수 있는 형태	사회건강	다소 긍정
모든 사람에게 접근 가능한 적절한 수준의 국민건강 및 질병치료 서비스	몸건강과 마음건강	연결하지 않음
고도의 건강상태(높은 수준이 적극적 건강과 낮은 수준의 질병	몸건강과 마음건강	연결하지 않음



**(2) 서태평양 지역 외국의 건강도시사업의 내용**

서태평양 지역 외국의 건강도시사업 내용은 <표12>에 정리된 바와 같다. 그 내용은 표에 잘 나타나 있으므로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했다.

**<표 12> 서태평양 지역의 외국의 건강도시사업 내용**

국가	시	사업
호주	Casey City	신체활동, 미소건강사업, 건강요리 경연
	From noarlunga to Oncaparinga	물, 안전, 기후변화에 관련된 에너지 사용, 건강계몽
	Kiama Municipal Council	영양과 음식안전, 조반 챙기기 사업, 흡연구역에서 흡연율감소사업, 신체적 활동, 어린이 안전, 성 건강교육
	Logan City	건강 식사 프로그램
캄보디아	Phnom Penh Municipal Government	건강한 학교, 건강한 시장, 건강한 병원
중국	Central and Western District, Hong Kong SAR	어린이 식습관과 위생, 청소년의 정신건강의 조사와 정신적 적합성에 대한 사업, 노인의 무릎통증, 저소득 여성 자궁경부 검진
	Changshu City, Jiangsu Province	건강증진 사업, 건강한 샵터 사업(커뮤니티, 가정, 학교, 기업, 정원, 호텔, 제도, 병원, 시장, 쇼핑몰), 건강서비스 사업
	The Kowloon City District, Hong Kong SAR	거주자들의 의견 수합(건강욕구 조사, 건강의 성취도와 장애물, 개선책 탐구)
	Kunshan City, Jiangsu Province	건강단위, 건강가족, 건강음, 건강 만들기, 건강지식 상승
	Kwai Tsing District, Hong Kong SAR	커뮤니티의 안전건강, 건강평가와 증진사업(학교, 가정, 노인정, 병원)
	Kwun Tong District, Hong Kong SAR	신체활동, 미소건강사업, 건강요리 경연
	Luohu District, Shenzhen	1만 명 함께 이 닦기, 조직부서의 협력, 환경 변화, 환경보호, 의료의 질 향상, 운동시설확충, 건강샵터
	Macao SAR	건강증진학교, 금연직장, 당뇨병예방과 통제, 금연식당, 담배 끊기, 세계 담배 없는 날, 심혈관계 예방, 식품안전, 에이즈 예방 등

국가	시	사업
중국	North District, Hong Kong SAR	건강걷기, 학생을 위한 청결 캠퍼스의 날
	Sai Kung District, Hong Kong SAR	건강을 위한 만보걷기
	Sha Tin District, Hong Kong SAR	도시의 건강상황의 진단(홍콩의 중국대학)
	Southern District, Hong Kong SAR	노인낙상을 줄이기 위한 여행과 센터 방문 사업, 여성 암에 대한 교육, 젊은이 건강 메뉴 짜기, 학생 건강증진과 건강 식사 활동에 초중의 지원 사업, 일반인이 운동참가에 따른 상
	The City of Suzhou	건강홍보사업 건강도시의 개념과 왜 어떻게 건강도시를 건설하는 가에 대한 홍보, 건강한 지역사회와 단위(학교, 기업, 병원, 정원, 식당, 호텔, 시장) 건설, 지역사회 건강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업(발전이 주제, 혁신이 동인)
	Tsuen Wan, Hong Kong SAR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안전과 건강한 자산 사업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사, 깨끗한 환경, 가정안전), 안전과 건강한 노인 가정 시상
	Wujiang City, Jiangsu Province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외식숙판과 식당의 양질의 맛있는 서비스 독려, 노인 돌봄의 기본 지식 촉진, 지속가능한 환경개선(커뮤니티의 환경보호 인식과 쓰레기 분리 시설)
	ZhangjiagangCity, Jinagsu Province	공무원, 신거주자, 중년, 학생의 보건교육, 건강한 삶터(가정, 학교, 병원, 식당),공중장소 금연사업, 장애출산 예방교육, 건강음과 건강 마을 만들기, 건강교육 공원 만들기
일본	Abiko City	질병의 일차예방(건강한 식생활운동)
	FukuroiCity	Smile(Sports+Stop Smoking)(Meals)(Internal Fat) Lifestyle(prevention) E(Enjoy)

국가	시	사업
일본	Ichikawa City	건강도시리더쉽역량사업(일꾼키우기), 건강도시 시민상(10명의 개인과 20개단체) 비영리조직 세금 1% 지원사업 (세금 독려와 비영리단체 지원) ECOVCO card (시민이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때 점수를 얻고 이것을 활용함)
	Kobe City	건강한 코베 21 사업 (대학과 기업 등 협력 건강한 식습관 금연사업), 건강의식도시 사업(시민 건강과 의료사업 및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총체적 전략, 코오베 운동가 타운사업 (연령에 관계없이 스포츠를 즐기게)
	Miyakojima City	삶의 방식 개선을 통한 암 예방 사업, 환경건강(환경보존, 지하수 보호를 통한 활용, 해양과 삼림 보존), 온실가스 줄임 (태양전지 대체에너지와 풍력 이용, 환경부 2030년까지 Bio ethanol 10% 가솔린에 혼합에 맞추어 3% 혼합 탄산가스 배출 줄임) 생태섬 선포
	Nagareyama City	도시 안에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창조
	Nagoya City	건강한 나고야 계획 21(생활습관 관련 질병 압과 당뇨등의 예방), 삶의 질 21 Jokoku 사업 (안락한 보건의료 및 복지사업), 나고야 건강대학 사업(전문가에 의한 교과과정의 형성: 과학적 근거와 전문가, 계속성을 위해 쉽고 재미, 좋은 습관을 키우게 함, 실험을 거쳐 시행하길 원함)
Obu City	가정식과 농업체험(식생활개선), 건강도전 촉진 사업( 1년에 2번 봄가을로 진행), 대학과 연결 건강교실( 운동과 웃음 등의 주제), 식습관 개선, 간접흡연의 반대에 대한 강력한 수단	
Owariasahi City	Genkiimaru 건강 네트워크사업: 시민의 건강조건 평가와 건강개선의 교육과 조언, 건강회복과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걷기사업, 휴식과 온천을 즐긴, 공원과 정원 개발사업, 건강촉진자의 활동 (근력, 웃음, 걷기)	

국가	시	사업
일본	Tajimi City	생애 주기별 식습관, 운동 금연(예컨대 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은 아침, 중년 장년(더 많은 야채), 노인
말레시아	Kuching, Sarawak	건강한 , 학교 , 음식 판매점, 쓰레기 간이 정류장 사업, 강 청결, 이웃 돌보기 길거리 사업
필리핀	City Government of Las Piñas	건강한 호텔, 병원, 학교, 공장, 슈퍼마켓 사업, 여성의 출산건강과 가족계획과 성병, 에이즈 예방을 위해 여성건강센터 설립
	Parañaque City	HELPS 사업(Health, Environment/ Education, Livelihood, Population/Peace/ Order, Social Services/ )
	San Fernando, La Union	쓰레기 관리와 위생 사업
	Tagaytay City	주거 사업, 생계사업, 건강과 영양사업, 건강영양사업, 환경보호사업, 교육/문맹퇴치 사업, 사회복지사업, 운동개발프로그램
	Valencia City, Bukidnon	생태균형, 경제안정, 마약 없음, 농업기반 무역, 하나님을 사랑하고 법 준수하며 자신감 있는 시민들의 비전
베트남	Hue City	건강한 환경, 건강한 학교, 건강한 시장, 건강한 직장

### (3) 우리나라의 건강도시 사업의 내용

건강도시사업이 2004년에 시작했기 때문에 올해 가입한 도시는 그러한 사업을 거의 시작하는 단계며 향후 사업을 계획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2004년에 서울시, 창원시, 원주시, 부산진구가 가입이 되었기 때문에 이들 도시의 건강도시 사업은 타 도시에 비해 역사가 깊다. 이들 도시 중 원주시가 특히 시장의 정책의지에 힘입어 열심히 하고 있으며 창원시도 비교적 열심히 편이다.

이번 건강도시 연맹 총회에서 자치단체가 발표한 내용을 중심으로 그 사업을 정리하면 <표 13>과 같다.

〈표 13〉 우리나라의 건강도시 사업 내용

도시	사업의 내용
안동시	인프라, 생활방식,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 삶터 접근, 환경, 평가에 대한 향후 사업
아산시	건강증진교실, 여성건강운동교실, 건강 100명 회원 사업
부산시	연기 없는 부산
부산시 부산진구	당뇨병 예방을 위한 요리, 어린이 식습관 교육, 노인을 한의 학 치료
부여군	건강한 마을의 노인 건강 학교, 노인친화 건강도시사업
창원시	시민들의 건강과 웰빙 사업, 보건과 함께 총체적 삶의 현장 접근
춘천시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잘 있는 도시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
서울 도봉구	거주의 건강과 웰빙 사업
동작구	건강한 어린이 돌보기 사업
서울 강동구	건강한 어린이의 삶의 장소 개선 사업
서울 강남구	생활현장의 건강증진 프로그램 (직장, 학교, 아파트)
금산군	건강한 시장과 학교 사업, 노인건강 친화사업
서울 구로구	건강한 직장, 취약계층을 위한 U 보전 체제(U-Healthcare system)
경기도 광명시	걷기 좋은 도시, 녹지대 조성, 생태학교와 환경교육센터 건립
전라남도 장흥군	복지와 자연과 대체의학치료, 유쾌한 환경, 소통의 증가
제주 특별자치도	금연프로그램 (공원 여행지 등 포함) 국제 마라톤, 건강한 학교(비만유발 음식들 추방 사업)
경상남도 진주시	공무원 역량 강화프로그램
서울 중구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사업
경상남도 남해군	건강한 마을, 학교, 시장
서울 서초구	건강한 아파트 사업
서울 성북구	노인과 함께 하는 건강한 마을 만들기, 건강지지 환경 만들기

도시	사업의 내용
서울 성동구	건강한 학교 만들기 사업
서울시	담배연기 없는 서울, 안전 환경 사업, 아토피 해방 사업
속초시	건강한 여름 캠페인
전라남도 순천시	건강행태 조사 분석
전라남도 완도군	건강한 섬 사업
원주시	건강도시 원주 5개년 계획수립, 건강개선 프로그램 운영 (시민 건강축제, 원주 시민 건강의 날)
서울 영등포구	어린이를 위한 금연공원, 담배 연기 없는 학교 사업, 공무원 체조
충청남도 연기군	건강한 학교 만들기, 건강한 시장 만들기, 아름다운 공원 만들기

#### (4) 서태평양 지역 건강도시 사업의 평가

첫째, 건강도시 사업이 행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둘째, 삶의 질 향상을 공통 목적으로 삼고 있다. 즉 모든 사업이 삶의 질을 높이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셋째, 건강도시의 정의와 특질에서 보면 전인건강의 시각과 다양한 샵터를 골고루 포함한 사업이 적다. 도시전체의 건강을 추진하는 사업을 위해 애쓰는 면이 결여되어 있다. 도시를 구성한 어떤 특정한 요소에 집중 하고 있는 샵터 접근법(setting approach)이 대부분이다. 샵터 접근법은 도시를 구성한 주요한 현상의 건강결정 요인을 평가하여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접근법이다. 즉 학교, 시장, 병원, 기업, 정원, 호텔, 쇼핑몰, 가정, 읍, 촌락, 노인정, 식당, 공장, 슈퍼마켓, 아파트, 직장, 감옥 등을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차원의 건강의 접근법을 사용한다. 이 경우도 몸 건강 사업 (영양, 운동, 금연, 신체활동 등)이 주류이다. 여섯째, 수요 대상으로 노인, 젊은이, 중년, 학생, 여성, 공무원, 어린이, 신겨주자 등이 포함된다. 일곱째, 나라별로 건강도시사업이 전인건강의 시각에서 골고루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마음, 몸, 사회, 환경의 건강을 균형과 조화 있게 하는 경우가 약하다.

건강도시사업은 조직행정 특히 지방조직행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생활행정학의 관점의 행정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것이고 향상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은 전인건강을 지향하며 향상된 삶의 질은 전인건강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국민의 마음, 몸, 사회, 환경의 건강을 추구하는 사업은 전인건강의 각각의 위험요인을 제거할 뿐 아니라 촉진요인을 발전시켜나가는 것이다. 건강도시 사업을 전인건강의 관점에 살펴보면 삶의 질 향상을 보다 잘 높이는데 도움을 준다.

지금까지 제시한 서태평양 지역의 건강도시 사업의 내용을 전인건강의 시각에서 다시 정리해 보면 <표 14>와 같다.

**<표 14> 전인건강 시각의 사업 분석**

건강도시사업의 차원	사업의 내용
마음 건강사업	청소년의 정신건강의 조사와 정신적 적합성에 대한 사업, 건강홍보사업, 건강도시의 개념과 왜 어떻게 건강도시를 건설하는 가에 대한 홍보, 하나님을 사랑하며 자신감을 갖는 시민, 교육/ 문맹퇴치 사업, 안전과 건강한 노인 가정상, 건강도시 시민상(10명의 개인과 20개 단체)
몸 건강사업	영양과 음식안전, 조반 챙기기 사업, 흡연구역에서 흡연 울감소사업, 신체적 활동, 어린이 안전, 성건강 교육, 무릎통증, 저소득 여성 자궁경부 검진, 신체활동, 건강요리 경연, 건강간기, 노인낙상을 줄이기 위한 여행과 센터 방문 사업, 여성 암에 대한 교육, 젊은이 건강 메뉴 짜기,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사, 질병의 일차예방(건강한 식생활운동, 삶의 방식 개선을 통한 암 예방, 생애 주기별 식습관, 운동, 금연, 아토피 해방 사업, 운동개발프로그램 공무원체조, 당뇨병 예방을 위한 요리, 어린이 식습관 교육, 노인을 한의학 치료, 건강증진교실, 여성건강 운동교실, 장애출산 예방교육

건강도시사업의 차원	사업의 내용
사회 건강사업	미소건강사업, 건강증진과 건강 식사 활동에 초·중의 지원 사업, 이웃 돌보기, 생태학교와 환경교육센터 건립, 가난 자를 위한 재정보호, 공사 협력관계의 혁신, 주거 사업, 생계사업, 사회복지사업, 경제안정, 미약 없음, 농업기반 무역, 법 준수, 여성건강센터 설립, 건강한 삶터 (학교, 시장, 병원, 기업, 정원, 호텔, 쇼핑몰, 가정, 읍, 촌락, 노인정, 식당, 공장, 슈퍼마켓, 아파트, 직장, 감옥), 담배 끊기, 세계 담배 없는 날, 건강도시 리더쉽 역량사업(일꾼 키우기), 비영리조직 세금 1% 지원 사업 (세금 독려와 비영리단체 지원) ECOVCO card (시민이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때 점수를 얻고 이것을 활용함), 소통의 증가
환경건강사업	기후변화방지, 금연 놀이터, 지역사회 정원, 물 안전 기후 변화와 관련된 에너지 사용, 지속가능 환경개선 (커뮤니티의 환경보호 인식과 쓰레기 분리 시설), 환경건강(환경보존, 지하수 보호를 통한 활용, 해양과 삼림 보존), 온실가스 줄임 (태양전지 대체에너지와 풍력 이용, 생태균형), 어린이를 위한 금연공원, 안전 환경 사업, 건강한 어린이의 삶의 장소 개선 사업, 거주자의 건강, 쓰레기 관리

건강도시 사업은 행정에 건강개념을 반영하는 것이기에 보건소 사업의 관점과 예산의 수준으로는 건강도시 사업의 원래의 목표를 제대로 살릴 수 없다. 건강도시의 정의와 특질에 맞게 다양한 계층을 만족시키는 건강도시 사업은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건강사업이 일반 행정과 별개로 움직이기 때문에 한계가 많다. 원주시는 시장의 강한 정책의지로 일반 행정과 유기적 관계를 맺으며 담배소비세의 수입을 건강도시사업에 투자하고 있으며 2006년도 그 예산 내역은 <표 15>와 같다(AFHC, 2008a).



〈표 15〉 원주시 2006년 건강도시사업 예산 내역

분야	사업수	금액(백만원)
어린이 와 청소년을 학교 위한 학교	4	3, 630
건강생활양식(운동, 절주, 금연)	14	2, 710
문화와 복지	7	2, 450
음식과 영양	3	2, 300
물리적 환경의 개선	10	1, 780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재활	5	1, 130
질병 예방	3	540
안전과 건강도시	1	200
교통	2	10
건강산업	2	10
지역과 직장의 건강증진	15	10
총계	66	14, 790

### III. 살림공동체의 신학적 관점

#### 1. 성경 속에 나타난 도시

성경에 119개의 많은 도시가 나타난다고 한다(Claerbaut, 2005: 5). 구약과 신약에서 도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구약에서 가인은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좇아 에녹시를 건설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 바벨론 남부의 히란으로 갔다. 구약선지자는 회개의 전도 뿐 아니라 도시계획에 관여했다. 요나는 당시 대도시 니느웨에 회개를 요구했다(요나 3:1-5).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도시갱신을 위해 힘썼다. 신약에서 도시는 여전히 중심에 서 있었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다섯 차례 정도 방문했다. 나사렛, 베다니, 가버나

움, 다른 도시를 방문했다.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전했다.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에는 믿음과 교회가 고대세계의 도시에서 어떻게 성장하는지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바나바는 선교를 위해 안디옥에서 교회를 개척했다. 바울은 당시 지적 능력을 구가하는 도시인 아테네에 갔고 항구도시인 고린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갔다. 바울은 죄수지만 160만이 산 로마에서 지칠 줄 모르고 복음 사역을 했다. 구약 예언자들에게 예루살렘은 회복된 거룩한 땅의 종교적 중심지로서 특별한 중요성을 가진다(에스겔 45:1-6) (IVP 성경신학사전, 2000: 639-640). 이와 대조적으로 고대 바벨론은 하나님 백성들의 사악한, 무자비한 적이였다. 계시록에 큰 성 바벨론의 멸망과 새 예루살렘의 도래가 기술된다(요한계시록 18:2; 요한계시록 21:2). 새 예루살렘은 거룩한 도시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영원한 처소가 될 것이다. 이러한 두 도시의 대조는 우리가 한평생 영원한 도시를 향해서 가는 중이라는 것을 잘 말해 준다. 이처럼 성경의 여러 곳에서 도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다루어지고 있다.

## 2. 자유주의신학의 현실참여

자유주의 신학으로서 해방신학(liberation theology)은 서구의 전통적 신학을 세 가지 점에서 비판한다(Kirk, 1989: 18). 첫째, 복음의 의미를 드러내고 표현하는 신학의 책임은 사회, 정치적 변화보다는 존재적 의미를 추구함으로써 이루어진다는 경향을 갖고 있다. 이러한 방식의 신학은 서구의 생활관점이 보다 깊이 배어온 개인주의를 강화시켜왔다. 둘째, 이러한 학문은 종종 경력을 쌓기 위해 주로 그 자체가 목적인 것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수행된 많은 연구가 사회적으로 선교학적으로 적실성이 없다. 세 번째, 많은 신학이슈가 지적인 문제인 것처럼 다루어진다. 이러한 비판은 신학의 주변적인 문제가 아니라 학문의 추구에 있어 신학의 핵심전제에 대해 도전하는 것이고 신학의 새로운 방식을 갖게 하는 것이다. 유럽의 정치신학이 이런 형태에 속한다. 사

회정치적 차원에서 교회의 예언자적 사명을 강조하며 1960년대 라틴 아메리카의 독재 권력의 억압과 다국적 기업의 경제적 착취에 대항하여 가난한 자를 빈곤에서 해방하려는 남미의 해방신학이 여기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의 1960-70년대 인권 유린과 착취 대상이 된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한 민중신학도 이러한 신학에 속한다(윤철호, 2002: 91-93).<sup>14)</sup>

자유주의 신학은 신학적 과제를 이해하는데 최소한 네 가지의 전제를 가지고 있다(Kirk, 1989: 19-22). 첫째, 교회의 생각과 실천에 대해 비판적인 반성으로 행동한다. 그러한 기능 중의 하나는 교회제도 안에서 운영되는 권력을 점검하고 이에 따라 전도와 목회 및 정치관여의 정도를 결정한다. 둘째, 교회가 스스로 발견하는 역사적 상황은 선교를 고려하는 출발점이다. 일부 해방신학자는 이것을 첫 번째 책(the first book) 또는 생명의 책이라 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두 번째 책(second text)을 읽고 해석하는 필수적인 맥락이라고 한다. 신학은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어떤 특정한 사회의 경제와 사회의 실재에 대한 비판적 반성이다. 신학적 반성은 현대의 신학이 되기 위해 현대의 자료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실재의 가장 중요한 측면은 빈곤의 토착적 성격이고 현대의 개발프로젝트가 빈부간의 큰 격차를 줄이는데 실패했다는 측면이다. 셋째, 신학은 구체적인 반성을 위해서 사회과학의 사용이 필요하다. 신학이 선교학 분야라면 사회가 작동하는 방법 특히 경제구조가 인구의 특별한 계층에게 유리하고 다른 계층에게 불리한 것과 싸워야 한다는 점이다. 요컨대 경제체제와 사회체제의 구조적 분석을 도입해야 된다는

14) 유럽의 정치신학을 대표하는 학자로 희망의 신학을 제창한 몰트만, 후기 몰트만 학자인 쥘레, 카톨릭 신학자인 메츠를 들 수 있고 남미 해방신학자는 페루의 신부이며 신학자이며 「해방신학( The Theology of Liberation: History, Politics, Salvation, 1973)」의 저작인 구스타브 구티에레즈와 아르헨티나의 감리교 출신으로 세계 교회협의회 회장을 역임하고 「혁명적 상황에서의 신학함(Doing Theology in a Revolutionary Situation, 1975)」의 저작인 보니노를 들 수 있으며 한국은 안병무가 대표적이다(윤철호, 2002: 91-133).

점이다. 해방신학은 일반적으로 맑시즘의 자본주의 비판을 널리 받아 드려 왔다. 넷째, 신학은 이데올로기와 결별할 수 없다는 점이다. 신학자들은 사회갈등이 특정한 경제·정치 상황의 부분이며 포장이라는 사실을 직면해야 한다는 것이다.

### 3. 복음주의의 사회적 관심

복음주의(evangelicalism)는 말씀과 행동을 통해서 비기독교인들과 복음을 나누고 그들이 그 메시지를 받고 회개하고 예수를 따르고 지속적인 제자훈련을 통해 교회에 소속할 것이라는 의도와 희망을 갖는 입장이다(Sider et al., 2002:64). 이 정의의 요소를 몇 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단순히 말씀 또는 행동을 통해서가 아니라 말씀 그리고 행동을 통해서 복음을 나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사랑의 행동은 그리스도의 삶의 언어적 표출을 보충하는 것이다. 둘째, 말씀들 듣고 메시지를 받는 사람이 회개할 것이라는 희망을 강조하는 것이다 셋째, 복음주의는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멈추는 것이 아니다. 대사명(마 28: 19-20)에 잘 나타나 있다. 복음주의의 궁극목적은 회개를 얻는 것이 아니고 제자를 삼는 것이다. 제자훈련 지향의 복음주의는 비기독교인들과 미지근한 신자들 및 교회를 떠난 기독교인들과 깊이 관련되어 그들을 도울 수 있다는 점이다. 넷째, 복음주의는 이러한 제자훈련을 통해 교회공동체에 믿지 않는 사람을 인도하는 것을 포함한다.

실제로 복음주의를 표방하면서 셋째까지 가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받아드리는 데 까지 이르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되면 사회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집중하게 된다. 존 스토틀(2005: 22-26) 목사는 복음주의가 사회적 문제에 대해 무관심하게 된 배경을 보다 깊게 말하고 있다. 18세기와 19세기에 영국과 미국에서 일어나 사회개혁운동의 열매는 복음주의가 출발점이 되었다. 영국의 요한 웨슬레 그리고 미국의 찰스 피니는 복

음주의에 기초해서 사회개혁이 결실을 보는데 크게 기여했다. 요한 웨슬레가 노예해방을 주도한 월버포스에 미친 영향 그리고 찰스피니의 반노예투쟁에 평생을 바친 테오도르 웰드가 대표적인 경우다. 하지만 20세기를 휩쓴 자유주의 신학에 대한 방어 내지 균형감각의 미흡으로 사회적 관심이 복음주의의 유산임에도 불구하고 빛을 잃게 되었다는 설명이다. 스토트는 데이비드 모그의 연구를 참고하여 복음주의가 사회적 관심에서 멀어진 이유를 몇 가지로 지적하고 있다.

첫째,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유럽과 미국의 교회를 휩쓴 신학적 자유주의와의 싸움이다. 복음주의자들은 자유주의자들이 복음을 소홀히 한다는 일종의 배신에 대해 여기에 방어를 하면서 사회적 관심을 소홀히 하게 된 것이다. 이때 근본적인 것들(The Fundamentals)의 열두 권짜리 소책자가 만들어졌다. 이것 때문에 근본주의(fundamentalism)이라는 말이 생겨나게 되었다. 둘째로, 복음주의자들은 신학적 자유주의자가 발전시키는 사회복음에 대해 반발했다. 라이센부쉬는 그의 첫 번째 책 『기독교와 사회적 위기 (Christianity and the Social Crisis)』에서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단순한 형태의 공산주의 혹은 기독교 사회주의를 주창했다. 그는 구원받은 영혼의 옛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새 복음의 차이점을 비교했다. 그는 개인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와 조화가 되도록 지상의 삶을 변혁시키는 것이며 기독교의 본질적 목적은 모든 인간관계를 쇄신함으로 인간사회를 하나님 나라로 변혁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세 번째 책 사회복음의 신학(A Theology for the Social Gospel, 1917)에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에 따른 조직된 인류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영향 때문에 복음주의자는 개인적 차원의 자선행위에 집중했고 사회적 행동에 대해서는 움츠러 들었다. 셋째, 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인간의 악이 폭로됨으로 환멸과 비관주의가 만연한 점이다. 이전의 사회프로그램이 실패함으로 인간과 인간의 사회에 대한 개혁의 가능성을 가지지 못했다. 넷째, 현재의 악한 세상이 개선되거나 구속될 것

에 대해 비관적인 입장인 전천년설이 만연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세상이 계속 악화되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바로잡을 수 있다는 생각은 사회적인 개혁 프로그램이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다섯째, 기독교가 중산층에 전파되었다는 점이다. 그래서 거기에 안주하며 밑바닥 사람의 생활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면이 있다는 점이다.

양차대전을 거치면서 복음주의의 사회적 관심이 약화되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사회적 책임에 대한 강조는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복음주의의 사회적 관심과 관련된 주요한 사건을 다음 <표 16>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6> 복음주의 사회적 관심관련 주요사건

사건	내용
1947년 칼 헨리의 저서	현대 근본주의 불편한 양심 (The Uneasy Conscience of Modern Fundamentals)
1966년 휘튼 선언	세계선교대회에서 복음전도가 우선이며 인종적 평등, 인간의 자유, 모든 형태의 사회정의를 위해 공개적인 노력 강조
1967년 제 1차 전국 복음주의 영국 국교도 대회	킬 대학에서 열렸고 영국교회복음주의자들이 보다 넓은 범위의 교회와 세속사회에 대해 관심부족을 회개하고 큰 관심다짐
1974년 국제세계복음화대회	스위스 로잔에서 150개국 2700명 이상이 온 땅이 그분의 음성을 듣게 하라는 표어로 로잔언약에 서명. 하나님의 목적, 성경의 권위, 그리스도의 유일성, 복음전도의 본질, 다섯째 그리스도의 사회책임에서 복음전도와 사회정치참여는 의무의 일부로 사회적 책임의 전환점 마련
1982년 복음전도와 사회적 책임의 관계협의회	로잔위원회와 세계복음주의협의회의 공동후원 하에 복음전도와 사회적 책임: 복음주의의 헌신이라는 보고서 발행
1988년 소금과 빛이라는 협의회 개최	영국에서 복음주의 동맹, 눈물기금, 복음주의 선교동맹, 공동후원으로 신학적 정치적 관점이 다르더라도 복음전도 사회적 관심의 통합 및 총체적 비전의 증진노력
1996년 전국복음주의자 총회	2700명의 복음주의 지도자가 모임. "어떤 삶의 영역에도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밖에 있지 않다"는 본머스 선언..

## 5. 공적신학의 사회적 관심

공적 신학(Public theology)은 최근에 자유주의와 복음주의 진영에서 함께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다.(이형기, 2008; 이승구, 2008, 김경재 2008).<sup>15)</sup> 신학자에 따라서는 공적 신학을 공공신학으로 부르기도 한다.

<sup>16)</sup> 신학이라는 말을 수식하는 공적(Public)이라는 말을 어떻게 규정하는가는 공적 신학의 성격을 파악하는데 중요하다. 캐디(Cady)는 공공신학에서 공적인 의미를 세 가지로 지적 한다(Philip Ziegler, 2002). 첫째, 공적신학은 합리적인 대화와 일치하는 어떤 방법적 특징(methodological characteristics)을 채택한다. 둘째, 수사적인 방식(rhetorical style)으로 전문적인 신학자적인 집단을 넘어 보다 넓은 국민과 의식적으로 소통한다. 셋째, 정치적 실재를 보증하는 일반인의 삶(common life)을 발전하고 변화하는데 초점을 둔 실제적인 의제를 채택하는데 있다. 스택하우스(Stackhouse)도 세 가지를 주장한다. 첫째,

---

15) 김경재(2006)는 "공공의 신학에 관한 개신교의 두 흐름"에서 보수적 기독교의 사유의 신앙과 진보적 기독교의 참여 신앙을 다루고 있다. 이형기(2008)는 "공적 신학의 지평: 하나님 나라"에서 두 진영을 아울러서 학자들을 소개하며 이승구(2008)는 "공적 신학에 대한 개혁파적 접근"에서 개혁파에 초점을 맞추어서 접근한다. 세계 교회협의회(WCC)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고 세계복음주의 연맹(WEA)에서는 특히 영국 복음주의 협회의 홈페이지(<http://www.eauk.org/>)에 공적 신학의 메뉴를 마련했다. 우리나라는 2007년 10월 6일 기윤실 20주년 기념 공공신학 전문가 집담회를 가졌다. 올해 10월 15일 장신대에서 열린 소망신학 포럼과 10월 24일 동신교회에서 열린 미래 목회 포럼에서 이런 주제를 다루고 있다. 우리나라의 김상복(할렐루야 교회)은 1846년 이후 동양인으로서 처음으로 WEA(<http://www.worldevangelicals.org/>)의 회장으로 올해 취임했는데 이러한 여건과 기회가 WEA와 한국의 복음주의협회 및 한국 교회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공적 신학을 통해 세상과 도시를 변혁하는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

16) 이승구(2008)는 public square를 공적 영역으로 번역해 왔으므로 여기에 쫓아 공적 신학으로 번역하고 있고 새 세대 교회윤리 연구소(2008), 공공신학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와 문시영(2007), 공공신학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기윤실의 집담회와 소망신학 포럼에서는 공공신학의 용어를 사용하고 목회포럼에서는 논자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다.

공적신학은 의미와 범위가 보편적인 문제로서 공통적인 인간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방향의 기능으로서 파악된다. 공적 신학은 안정적이고 생산적이며 다원화된 사회를 위한 신적 경륜의 자원(theonomous resources)을 돌본다. 둘째, 특별한 이성의 양식으로 접근한다. 아이디어가 개방된 시장에서 판단의 실제적이거나 여타의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생존가능성과 능력에 의해 인간마음의 세계적 차원을 확신시키는 방법으로 비신학적인 국민대화를 평가하고 인도한다. 셋째, 이러한 메시지를 인구집단에게 전하는 실천가 등의 기능이다. 두 사람의 입장은 표현의 차이는 있지만 비슷한 의미의 범위를 갖고 있다. 보편적 합리성, 신학자집단을 넘어 국민과의 넓은 의사소통, 실천적인 것에 초점을 둔다.

공적 신학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내세우지 않는다. 포리스터(Forrester, 2004)는 공적 신학이 회개와 회심의 희망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차적이고 직접적인 복음주의적 신학(evangelical theology)은 아니라고 한다. 오히려 교회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복음을 전하고 성찬을 시행하는 고유한 기능 이전에 도시의 복지(welfare)를 추구하는 신학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공적 신학은 종종 자신의 의제로서 세상의 의제나 지역의 의제를 택하며 좋은 사회 건설, 악의 제어, 폭력 억제, 국민통합, 공적 영역내의 화해 등을 돕기 위해서 신앙의 금고(treasury of faith)로부터 특징적이고 건설적인 통찰력을 제공하는 것을 추구한다. 즉 스택하우스(Stackhouse)가 말한 바와 같이 공적 신학은 종교적 공중(religious public)에 초점을 두기보다 정치적 공중(political public), 학문적 공중(academic public), 경제적 공중(economic public)에 더 중점을 둔다고 볼 수 있다(Stackhouse, 1997).

덱슨(Dackson, 2006)은 공적 신학의 특징을 네 가지로 지적한다. 첫째, 현재 일어나는 도전에 반응하여 상황적(contextual)이어야 한다. 특히 그러한 도전이 기독교의 전제에 대해 적대적일 때 더욱 그러하다. 둘째, 비신학적인 정보원의 통찰력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학제적(interdisciplinary)이어야 한다.



셋째, 실천지향적이며(praxis-oriented) 수행되어야 (performative) 한다. 넷째, 종교적으로 다원화된 상황을 이해하고 해석하며 반응하기 위해서 전통이 갖는 핵심을 고수할지라도 그 전통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공적신학은 현실 속에서 자유주의신학과 복음주의신학의 공통분모를 찾고 대화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 함께 관심을 가지고 탐구해야 할 문제가 공통분모가 크다는 뜻이다. 국제적으로나 국내에서 다루는 문제는 비슷한 범위에 속한다. 예컨대 세계화 문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의료, 환경, 공적 신학의 체계화 등의 문제는 공통관심사가 될 수 있다(이형기, 2008; 이승구 2008).

이러한 자유주의의 신학과 복음주의 신학의 현실문제에 대한 공통분모를 갖더라도 각 신학이 갖는 전제가 다르면 문제에 대한 접근방법이 다를 수 있다. 자유주의신학과 복음주의 신학의 연속선상에서 성경관, 구원관, 종말론 등에 여러 가지 다른 전제의 입장이 존재한다.<sup>17)</sup>

## 6.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살림 공동체의 입장

자유주의 입장은 복음의 본질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역사적 상황이 복음의 출발점이 될 수 없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출발점이 되어야 하는 점을 놓치고 있다. 복음주의는 복음의 본질인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지만 복음주의권의 현실 교회의 모습이나 기독교인들은 여전히 사회적 책임과는 거리가 멀다. 사이더 등(Sider et al., 2005: 111)이 말한 복음주의와 사회책임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17) 이승구(2008)는 개혁파 공적신학을 전개하는데 있어 기독교 증거, 교회안팎의 논의, 다른 학문 활용, 신학적인 측면에서 유의할 점을 들면서 특히 신학적으로 삼위일체론, 보편구원론의 함의를 가지지 않으며, 만유재신론적인 방향의 전개가 안되며, 인간능력에 의한 변화의 시사를 지양하며, 하나님을 증언해야 된다고 주장한다.

들을 통합시키는 관점이 약하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분리하고 거룩한 생활과 속된 생활을 분리하며 구원과 성화를 분리하여 연결하지 못하는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교인 수에 비해 현실문화를 변화시키는 결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 리처드 니이버(2007: 311-318)의 변혁하는 그리스도의 입장에 대 부분의 교회가 서있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신앙의 본질을 지키면서 현실에 대한 관심과 변화를 이어 가며 나아갈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다. 공적 신학에서도 그 전제가 복음의 본질을 인정하지 않으면 뿌리 없는 나무가 생명력을 받아 성장할 수 없는 것처럼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여기서 제시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샬롬공동체의 입장이다. 이러한 샬롬공동체의 입장은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샬롬 커뮤니티를 형성해 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개념을 분명히 하기 위해 하나님의 통치와 샬롬 커뮤니티 형성의 관계를 살펴보기로 하자.

### (1)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 서는 하나님 백성의 구속이 전제가 된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되었고 완성되지 않았으며 완성된 종착점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하나님나라는 교회의 모습에서 가장 분명하게 들어나며 교회에 속한 지체들이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 확장되어 간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그리스도시며 만왕의 왕이시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거듭난 존재가 들어가며 현재에도 영원한 미래에도 하나님의 백성 된다. 따라서 개인의 삶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자이시며 우리의 왕이요 주가 되신다.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성령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다스리신다. 이처럼 하나님나라는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인 교회와 삶의 전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며 예수님이 재림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그의 택한 전체 백성이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된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서 상수원에 비유된다. 상수원이 깨끗할수록 세속

문화의 물결이 거센 현실과 부딪치는 기독교인의 삶의 총체인 하루가 깨끗해질 수 있다. 교회가 거룩하면 기독교인들의 삶이 거룩해지고 기독교인들이 삶이 거룩해지면 교회의 거룩성을 촉진시킨다. 교회의 건강함은 기독교문화의 번성을 가져와 건강한 시민문화를 뿌리내리며 확산시키는 기초가 된다.

## (2) 샬롬 공동체(shalom community)의 신학의 관점

### ① 샬롬의 개념

하나님의 의도를 가장 잘 표현한 말이 샬롬(shalom)이고 하나님 백성의 기술이 샬롬 공동체(shalom community)이다(Linthicum, 2005: 4-6). 히브리어 'shalom'이라는 말이 구약성경에 397번 그리스어 eirene는 397번 나온다. 샬롬은 단순히 평화(peace)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샬롬은 이보다 훨씬 풍성한 의미를 담고 있다. 샬롬은 안녕(weal), 복지(wealfare), 완전함(completeness), 화평케 함(to cause to be at peace), 화해(to make peace), 화목제물(peace offering), 휴식(at rest), 편함(at ease), 안보(secure), 안전(safe), 유종의 미(to finish well), 번영(to prosper), 온전함(to be whole), 완벽함(to be perfect), 승리(to be victorious)를 포함하는 개념이다(Linthicum, 2002).

윌터스토프(2007: 14)는 샬롬을 인간이 모든 관계에서 평화를 누리는 상태라고 정의한다. 여기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자아와의 관계, 동료들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등이 포함된다고 한다. 즉 첫째, 샬롬은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바르고 조화로운 관계를 맺고 그 분을 기쁘게 섬기는 상태이다. 둘째, 샬롬은 다른 인간들과 바르고 조화로운 관계를 맺고 인간 공동체가 기뻐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셋째, 샬롬은 자연과의 바르고 조화로운 관계를 맺고 물리적 환경을 기뻐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불순종한데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정상

적인 것이 되었기에 구속을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회복이 전제되지 않은 한 다른 것의 관계회복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은 이룩되지 않는다. 샬롬은 하나님과의 관계회복이 전제가 되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회복, 자신 내부의 모순적인 관계의 회복, 자연과의 관계 회복의 결과로 이루지는 것이기에 성경적인 건강, 보다 분명히 말하면 성경적 전인건강인 것이다. 성경적 전인건강은 구속을 전제로 한 영적,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환경적 건강이다.

## ② 샬롬 커뮤니티의 신학

린시쿰(Linthicum, 2005)은 지역사회의 변화를 위한 방향으로 하나님의 의도로서 샬롬커뮤니티(shalom community)를 일관되게 주장한다. 그는 창세기의 에덴동산에서 계시록의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의도의 비전을 보여 주고 있다고 말한다.<sup>18)</sup>

샬롬이 실현되는 세 가지 주요한 지표로 종교체제, 정치체제, 경제체제를 들고 있다. 그러한 지표는 어느 사회이든지 종교, 정치, 경제 체제에 나타나 있다. 첫 번째 지표로 올바른 종교는 신념, 가치, 종교적 실체가 사람들과 사회를 하나님과 역동적인 관계를 맺도록 현실에서 구현하는 데 있다. 정치지표로 정치체제는 정의롭고 자애롭게 행동하는가에 의해 결정된다. 사회의 중재적 제도로서 교회는 사회의 정치체제가 공적 생활을 영위하는데 공정하게 하는 것과 특히 힘없는 사람을 공흥이 여기는 과제를 갖고 있다. 경제지표로 경제체제는 빈곤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스라엘과 교회는 그들의 부를 하나님의 선물 곧 그들이 그것을 잘 위탁받은 자가 될수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공동의 부라고 인식해야 한다. 그들이 그 부를 관리하는 최종목적은 사회의 모

18) 창세기 2:7-8의 에덴, 출애굽기 19:3-6의 제사장 왕국과 거룩한 나라, 신명기 4:12-20의 하나님의 친백성, 시편 48: 1, 12-14a의 하나님의 도시 시온, 스가랴 8:3의 거룩한 산, 예수의 누가복음 17: 20-21의 하나님 나라, 바울의 고린도전서 15:23의 그리스도의 나라, 요한의 계시록 21:1-2의 주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을 그 근거로 제시한다.

든 곳에 걸쳐있는 빈곤을 제거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와 괴리된 현실의 모습이 발견된다. 종교적 부패는 부에 대한 탐심을 가질 때 시작된다. 경제부패는 가난한 자와 힘없는 자를 착취하는 경제적 탐욕에 굴복할 때 나타난다. 정치부패는 백성을 억압하는 일방적인 권력을 행사할 때 나타난다. 착취의 경제와 억압의 정치가 종교시스템과 담합하는 경우가 생긴다. 그 이유는 경제적 착취와 정치적 억압은 백성 쪽에서 반란을 일으킬 위험이 있고 백성들이 그들의 반응을 관리하고 통제하는데 종교가 행사하는 신뢰가 사용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체제의 지도자를 모방할 때 백성은 서로간의 착취자, 힘없는 자의 억압자, 사회의 통제자로 전락한다.

린시쿰(Linthicum, 2005)은 바빌론으로 잡혀간 포로들이 70년 후에 귀환한다는 약속을 선포한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던진다고 주장한다. 예레미야는 바빌론의 포로로 살다가 죽을지라도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이 바빌론에 있는 것이고 이 장소에서 복을 줄 것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곳에 있게 한 계획을 실천할 때 약속이 실현된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예레미야 29: 7). 우리가 도시 안에 있는 이유는 단순한 환경(environment) 때문만이 아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부르심(call from God)이 있다는 것이다. 이스라엘백성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것은 이중적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환경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망하고 그 군대가 패하고 도시가 불타고 쇠사슬에 묶여 사막을 건너 바빌론에 온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바빌론의 악한 도시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렀다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는 단순히 이곳에 태어났고 여기에 이사하고 직장을 가지고 교육을 받고 아내를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러한 지역사회에 불려서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존재한다. 하나님은

26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바빌론에 포로로 붙렸던 것과 꼭 같은 과업을 위해서 붙렸다는 것이다. 즉 그 도시의 살롬—평화, 번성, 안녕, 온전함, 충만함, 화해를 위해서 말이다.

따라서 살롬을 추구할 곳은 하나님의 도성이 아닌 바빌론이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극히 혁명적인, 상상할 수 없는 충격적인 진술이었다. 그들이 바빌론 내에서 평화를 조성하지 못한다면 개인적인, 집단적인 살롬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을 함축하기 때문이다. 바빌론이 갖는 성격은 이스라엘에 있어 악의 상징이다. 이스라엘 문화에서 그것은 타락의 실질적 상징이다. 바빌론을 향한 이러한 태도는 성경의 곳곳에 나타나 있다. 바빌론과 같은 의미의 바벨은 혼돈된 언어의 상징을 나타내는 도시를 뜻한다(창세기 11:9). 또한 역사서와 선지서에서 바빌론은 악으로, 계시록에서 요한은 바빌론을 하나님에 대항하는 인간의 문명과 억압의 정치 및 경제적 탐욕과 착취를 상징하여 나타낸다. 바빌론이 악하고 어둠의 도시의 상징이라 할지라도 바빌론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이 도시를 변화시킬 수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관계적 문화를 갖는 사람일지라도 도시의 살롬을 경험하지 못하면 자신의 삶과 가족이나 시민들을 위한 평화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평화의 대사로서 인간사회의 가장 어두운 영역에 보내셨다.

린시쿰(Linthicum, 2005)은 구약에서 못가진 자의 살롬은 노예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이나 해방과 직결된 살롬이고 가진 자의 살롬은 폭정하의 백성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요셉이나 다윗처럼 안전한 백성이나 잘 사는 백성에게 축복하는 살롬이라고 한다. 신명기에서 이러한 관점을 잘 통합하고 있다.

“에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 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젓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지어다(신명기 26:6-10)."

신약에서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농민)의 해방과 특히 부유하고 힘 있는 사람들(이스라엘의 선생들이나 지주)의 책임을 강조하신다. 하나님의 의도하신 사회의 비전으로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심을 가진다. 그 회복은 힘 있는 사람들의 경우 그들이 추구하는 정치와 경제정책 및 부와 권력의 개인적 사용으로 일어난다. 그 근거로 부자청년(누가복음 18:18-25), 세리 삭개오(누가복음 19:1-10), 바리새인들(마태복음 21:1-36)의 경우를 들 수 있다. 그들이 농부들이나 그의 제자들보다 더 악하다는 면보다 그들이 갖고 있는 선을 위한 잠재력을 낭비했다는 점이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아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 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누가복음 18:18-25)".

린시쿰(Linthicum, 2005)의 가진 자와 못가진자의 삶의 구분은 소극적 의미에서 억압된 현상으로부터의 자유와 적극적 의미에서 안정된 지위로부터

의 축복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으나 둘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회개하고 거듭나야 되는 것이 전제될 것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 IV. 건강도시와 살롬공동체의 공통분모

##### 1. 건강도시와 살롬공동체와의 비교

하나님이 의도한 세계는 살롬공동체이다. 이것은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살롬공동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현재도 이루어지고 계속 이루어져야 할 살롬공동체를 의미한다. 하나님 나라는 현재에 도래되어 미래를 향해 완성되는 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누가복음 4:15-12절에는 이러한 현재성을 나타내고 있다(양용익, 2006: 75-76). 마태복음 13:31-33절의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이사야 65장을 예수님이 재림해서 누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삶을 나타낼 수 있지만 현재 불완전하게나마 성령의 능력으로 맛볼 수 있는 살롬이 숨쉬는 공동체의 모습으로도 볼 수 있다(김서택 2008: 495). 린시쿰(Linthicum, 2005)은 후자의 입장에서 이사야 65장으로부터 살롬커뮤니티의 특징을 다음과 정리하고 있다. 1) 모든 사람을 위한 남부럽지 않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여유 있는 주거(이사야 65:21-22). 2) 적절한 수입과 삶의 의미와 초점을 제공하는 직업(이사야 65:21-22). 3) 모든 사람에게 제공되고 장수에 기여하고 유아사망을 종식시키는 보건의료(이사야 65:20). 4) 안정되고 안전하며 상호지지적인 이웃(이사야 65:25). 5) 건강하고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는 환경(이사야 65:20). 6) 부가 상대적으로 공평하게 분배되어 사람들 간에 소득과 부와 직위와 신분에 있어서 큰 격차가 없는 것(이사야 21-23). 7) 사람들이 서



로 평화롭게 삶(이사야 65:19, 23).

이러한 특질은 건강도시의 특징과 상당히 중복되는 면을 갖고 있다. 다음과 같이 <표 17>과 같이 살펴 볼 수 있다.

건강도시와 살롬커뮤니티는 많은 유사점이 있다. 포리스트어(Forrester)는 기술한 바와 같이 공적 신학을 교회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복음을 전하고 성찬을 시행하는 고유한 기능이전에 도시의 복지(welfare)를 추구하는 신학이라고 한다. 이런 맥락에서 공적 신학은 건강도시를 추구한다. 그러나 건강도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불순종한데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정상적으로 되었기에 구속을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회복이 전제되지 않는 한 다른 것의 관계회복을 하더라도 성경에서 말하는 살롬은 이룩되지 않는다.

같은 건강도시의 명칭을 쓰더라도 성경적 건강도시와 비성경적 건강도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전제하는가의 여부에서 그 차이점이 분명히 드러난다. 건강도시의 특징은 이웃과 자신에 대한 사랑 및 환경에 대한 사랑을 지적 하지만 하나님 사랑에 대한 것은 명시하지 않는다. 이것은 성경적 세계관과 문화를 통한 건강도시와 그렇지 않은 건강도시가 이 지상에 함께 존재한다는 것을 함축한다. 살롬커뮤니티는 성경적 세계관이 뿌리를 내린 성경적 건강도시를 의미한다. 이러한 성경적 건강도시는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 인간자신의 관계회복, 인간과 인간의 관계회복, 인간과 자연과의 회복을 전제로 한 영적 건강, 정신적 건강, 사회적 건강, 환경적 건강을 추구하는 도시이다. 그러나 비성경적 건강도시는 예수님의 구속을 전제로 한 영적 건강을 추구하지 않을 지라도 정신적 건강, 사회적 건강, 환경적 건강을 추구한다.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고통에 다가가고 그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기독교인들의 소중한 자산이다. 그들은 영적 고통 외에도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환경적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 17〉 건강도시와 이사야서 샬롬공동체의 특질 비교

건강도시의 특질	이사야서의 샬롬공동체의 특질	전인건강 차원
주거환경을 포함하여 청결하고 안전한 물리적 환경	모든 사람을 위한 남부럽지 않고 위생적이며 안전하며 여유있는 주거 (65:21-22)	환경건강
현재 안정이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생태체계	적절한 수입과 삶의 의미와 초점을 제공하는 직업 (65:21-22)	환경건강
강한 상부상조적이며 비착취적인 지역사회	사람들이 서로 평화롭게 삶 (65:19,23), 안정되고 안전하며 상호지지적인 이웃(65:25)	사회건강
시민의 삶과 건강 및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대해 시민이 높은 수준의 참여와 통제	사람들이 서로 평화롭게 삶 (65:19, 23)	사회건강
모든 시민을 위한 기본욕구(음식물, 주거, 소득, 안전과 직업)의 충족노력	부가 상대적으로 공평하게 분배되어 사람들 간에 소득과 부와 직위와 신분에 있어서 큰 격차가 없는 것(21-23)	사회건강, 몸건강
다양하고 폭넓은 접촉의 기회와 교류 및 의사소통을 통해 넓고 다양한 경험과 자원의 접근	사람들이 서로 평화롭게 삶( 65:19,23)	사회건강
다양하고 활력 있으며 혁신적인 시의 경제	부가 상대적으로 공평하게 분배되어 사람들 간에 소득과 부와 직위와 신분에 있어서 큰 격차가 없는 것 (21-23)	사회건강
도시의 과거와 거주자의 문화적 생물학적 유산과 함께 다른 집단과 개인들의 연결을 격려	모든 사람을 위한 남부럽지 않고 위생적이며 안전하고 여유있는 주거(65:21-22)	사회건강
이전의 특성과 양립하고 고양할 수 있는 형태		
모든 사람에게 접근 가능한 적절한 수준의 국민건강 및 질병 치료 서비스	모든 사람에게 제공되고 장수에 기여하고 유아사망을 종식시키는 보건의료 (65:20)	몸건강
고도의 건강상태(높은 수준이 적극적 건강과 낮은 수준의 질병)	건강하고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는 환경 (65:20)	몸건강

## 2. 건강도시와 살뜰 공동체의 공통분모

생활행정학과 신학이 만나는 공동광장은 삶의 질 향상이라는 것과 전인건강의 추구라는 교집합의 영역으로서 고통 받는 사람에 대한 이웃사랑이라는 연결고리로서 만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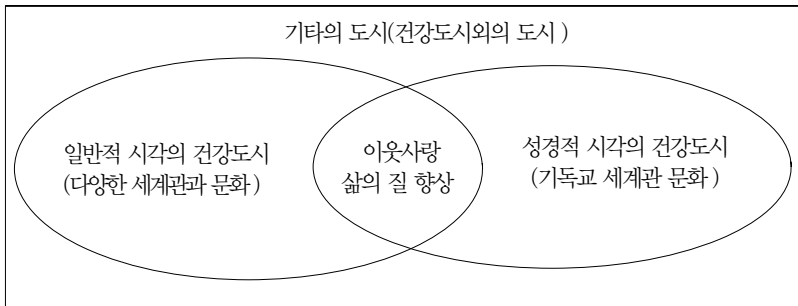
성경적 건강都市는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성경적 전인건강을 위해 애쓰는 도시이다.<sup>19)</sup> 교회의 자원을 통하여 영적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환경적 고통을 치유하는 도시이다. 성경적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이다. 그러나 완벽한 성경적 건강都市는 지상에는 없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상의 거룩한 도시인(Holy City) 새 예루살렘(요한계시록 21: 1-22: 5)은 하나님의 백성의 전체를 의미하며 하나님의 신부로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된다.<sup>20)</sup> 완벽한 성경적 건강都市는 궁극적으로 완성된 하나님 나라로서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인 새 예루살렘을 통해서 전개되는 도시이다. 한편 성경적 건강都市는 참 사랑을 실현하는 도시이다. 이것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도시이다. 그것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도시이다. 나아가 고통 받는 이웃을 사랑하는 도시이다.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자신을 사랑하는 도시이다. 자신의 욕구 충족이나 역할 수행 또는 자원의 확보는 결국 자신을 위하는데 국한되어 있지 않고 이웃의 고

19)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큰 계명을 실천한 교회라면 실천의 충성 정도에 비례해서 그 교회는 성경적 건강都市를 위해서 애썼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이곳에서(*hic et nunc*)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삶의 현장에서 고통 받는 사람들은 우리의 이웃이다. 타 도시의 조사가 필요하지만 춘천시, 포항시 등의 기독교인들과 교회가 나름대로 성시화 운동을 통해서 성경적 건강都市를 위해 애를 썼다고 볼 수 있다.

20) 새 예루살렘을 무엇으로 보는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히 사는 곳으로 보거나 백성의 공동체로 보거나 이 양자를 같이 보는 경우의 입장이 있다(김서택 2005: 853-4; 손영목 2007: 281, 유동근 2007: 629; 최세창, 2005: 427).

통을 해결하는 에너지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에너지의 원천이 된다. 현실에서 참사랑을 실현하는 것은 불완전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그 사랑을 맞볼 수 있다. 참사랑의 완벽한 실현은 주의 재림 시에 이루어진다.

이 세상의 모든 도시가 건강도시는 아니고 모든 건강도시가 다 성경적 건강도시라고 할 수 없다. 비성경적 건강도시도 존재한다. 이러한 도시는 다른 종교와 세계관 가치관을 가질 수 있다. 성경의 건강도시와 비성경적 건강도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도시에 확장되는 것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러한 관계는 <그림 2>와 같이 도식화될 수 있다.



〈그림 2〉 일반적 의미의 건강도시와 성경적 건강도시의  
공통점과 차이점 비교

도시는 다양한 세계관과 가치관을 갖고 사는 곳이다.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진 경우도 있고 다른 종교적 세계관을 갖고 있거나 종교를 갖지 않는 사람 등 다양하다. 도시에에는 그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가치관이나 가치가 있다. 기독교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그들이 원하는 것 가운데 공유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확인하고 살피면서 이러한 공통분모를 확장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비둘기 같이 순결함과 뱀같이 지혜로움은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당부한 것이다(마태복음 10:16). 고통 받는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

의 삶의 질과 웰빙을 중요시하는 것은 이것은 신앙의 유무와 관계없는 공통분모이다. 이러한 공통분모는 우리의 착한 행실을 사람에 비추게 하는 원천이 된다.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의 삶의 질을 높이며 그들의 웰빙 욕구를 만족시켜 주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야 말로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신자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믿고 영광을 돌리게 하는 지름길이 된다(마태복음 5:16). 예컨대 아프간에서 선교대행진을 한다고 모이고 과시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이러한 대행진 이전에 그들과의 공통분모를 찾는 것이 선행되었다라면 극단주의자의 표적에서 벗어날 수 있고 현재의 아프간 사태가 이처럼 악화되거나 불신자로부터 필요이상의 오해를 사지 않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

기독교는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요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배타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사랑할 뿐 아니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 없는 이웃사랑도 문제가 있지만 이웃사랑 없는 하나님 사랑도 문제가 있다. 성경적 건강도시는 하나님 사랑을 항상 생각하면서 고통 받는 이웃에 대한 생각도 멈춰서는 안 된다. 도시 속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도시 속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의 고통, 몸의 고통, 관계의 고통, 환경의 고통에 대해 함께 아파하는 것이 보편화되었다면 기독교인들에 대한 불신자의 태도는 달라졌을 것이고 기독교인들의 비율도 줄어들지 않았을 것이다. 이웃을 사랑하는데 시간과 힘이 달리는 것을 스스로 깊이 느꼈을 때 하나님께 능력과 건강 및 시간을 달라고 기도하며 스스로 이를 위해 노력하게 된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자기사랑이다.

돈을 사랑하는 배금주의, 쾌락을 추구하는 향락주의는 이웃사랑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이웃에게 손해를 주는 이기적인 자기사랑 곧 이기주의의 다른 표현이다(디모데 후서 3:1-5).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자기 사랑은 국가라는 집의 기둥인 경제를 일으키며 기둥을 밑받침하는 주춧돌인 교육을 키우는 원천이 된다. 이러한 자기사랑은 자본주의를 건강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원동력

이 된다. 원래의 자본주의는 프로테스탄트의 윤리인 직업에 대한 소명 의식, 근검, 절약, 개인의 책임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유명한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말했다. 이 땅의 봉사 정신을 가로막는 요인 중 핵심적인 것이 천민자본주의 논리이다(조무성, 2005). 천민자본주의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돈만 벌면 된다는 의식이다. 돈 버는 데 윤리가 필요 없다는 것이다. 자신의 욕구를 채우고 잠재력을 개발하는 목적의식이 건강할 때 착하고 힘 있는 인재가 배출될 수 있다. 설령 공부를 잘하더라도 공부를 통해서 자만심을 충족하는 것이 목적이 된다면 사회는 악하고 힘센 사람이 점점 많이 배출될 수 있을 것이다. 성경적 건강도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이를 위해 자신을 사랑하는 도시인 것이다. 성경적 건강도시를 결정짓는 것은 경건에서 우러난 의를 행하며 자신의 능력을 부지런히 개발하여 신앙인격과 실력을 갖춘 사람이 도시 속에서 주도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고 주님이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지상명령을 내렸다. 예수님이 분부한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다. 자기사랑은 명령을 안했을지라도 당연한 것으로 전제되어 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처럼 자기를 사랑한다면 자신은 아마 굶어 죽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배고픈 사람을 보고 지나갈 정도로 이웃을 잘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기를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배고파 고통스러우면 상대방의 배고픈 고통을 느끼고 이웃을 위해 그 고통을 치유한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 성경적 건강도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및 자기사랑이 질서를 이루어가는 참사랑의 도시이다.

### 3. 성경적 건강도시화의 수준

어떤 도시가 어느 정도의 성경적 건강도시화를 이룩했는가를 보는 쉬운 방법은 그 도시의 전체인구 중에 기독교인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는 것이다. 기독교

인의 전국 평균비율에 비추어 한 도시의 기독교인의 비율을 비교하는 것이다. 예컨대 꺾림이 2005년에 조사한 것처럼 전국 평균이 21%라고 하자. 만약 어떤 도시의 기독교인 비율이 40%라고 한다면 그 평균을 훨씬 넘는 것이고 10%미만이라면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10%라면 평균에 상당히 못 미치는 것이 된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의 수가 많다고 하더라도 신앙의 성숙도가 낮으면 기독교문화의 영향력은 그렇게 강하지 못하다. 기독교인들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을지라도 신앙의 성숙도가 높으면 기독교문화의 영향력은 더욱 크게 될 수도 있다. 이처럼 기독교문화의 정도는 성경적 건강도시화의 수준을 보는데 양보다 질을 측정하는데 효과적이다. 양으로도 질을 추정할 수 있지만 정확하지 않을 때가 많다. 성경적 건강도시를 측정하기 위해 비기독교문화와 기독교문화의 간격을 다음 <표 18>에서 정리해 볼 수 있다.

표에서 성경적 건강도시는 기독교문화가 우세한 도시이다.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기독교문화의 비율은 단순히 기독교인의 비율과 차이가 있다. 둘째, 성경적 건강도시화는 시에 따라 차이가 난다. 셋째, 아직 시 단위로 성숙기에 접어든 성경적 건강도시는 없다. 기독교문화가 50% 이상인 것은 성숙된 것으로 현실에 찾아보기 힘들다. 넷째, 기독교문화의 수준이 높을수록 건강한 시민문화의 수준이 높아진다. 다섯째, 기독교문화를 측정하기 위해 기독교가치와 생활방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여 측정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보다 이 방면의 전문가들이 참여해야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여섯째, 성경적 건강도시화를 파악하는데 쉬운 방법으로 양적인 자료(기독교인수)를 가지고 질적인 자료(기독교문화)를 추정하는 경우 양

〈표 18〉 성경적 건강도시의 측정을 위한 기독교문화와 비기독교문화의 간격<sup>21)</sup>

기독교문화 (수준과 백분율)	단계	기독교문화의 수준	주기 비유	비기독교문화
A급(90%이상)	성숙기	최상급	성년기	F1급(0-9%)
B급(80-89%)		상급		F2급(10-19%)
C급(70-79%)		중급		F3급(20-29%)
D급(60-69%)		하급		F4급(30-39%)
E급(50-59%)		과도기		F5급(40-49%)
F5급(41-49%)	성장기	최상급	청년기	E 급(50-59%)
F4급(31-40%)		상급	청소년기	D 급(60-69%)
F3급(21-30%)		중급	소년기	C 급(70-79%)
F2급(10-19%)		하급	유아기	B 급(80-90%)
F1급(0-9%)	발아기	초급	영아기	A 급(90% 이상)

적인 자료의 정확성을 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인들의 중복 등록 등이 조사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교포 교회의 경우 초창기 출석만 하고 나중에는 실제로 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세례 교인 수, 학습교인 수 등의 정확한 통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양적 자료로부터 건강도시화 정도를 추정하는 데 더 많은 제약점을 가지게 된다. 현재 꺾림에서 조사한 기독교인 비율 21%를 가지고 기독교문화를 추정하면 우리나라의 도시는 발아기를 거쳐 성장기로서 유아기와 소년기 사이의 건강도시로 추정된다. 우리나라는 양적 성장에 비해 질적 성장이 약한 것으로 보여 진다.

21) 기독교 문화를 측정하기 위해 10%의 간격을 두고 등급을 매기는 아이디어는 성적평가의 학점을 상한선 A에서 D까지 두는데서 얻었다(조무성, 2002: 285-287). 자의적일 수 있지만 수준의 차이를 10%로 두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인지 모른다. 50~59%는 E로 표시했다. 기독교 문화 50% 미만은 비기독교 문화 60%이상을 나타낸다.



## V. 성경적 건강도시를 향하여

한국교회는 교인수의 감소와 부정적 이미지 증가 등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는 우리나라가 WHO 건강도시연맹의 9개국 100개 도시 중 현재 48개 도시가 건강 도시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고 계속 늘어 날 전망이기 때문에 성경적 세계관의 뿌리를 지혜롭게 놓으면 성경적 건강도시 곧 살롬공동체를 형성하는 절호의 기회가 된다. 이러한 기회의 활용은 성경적 전인건강을 도시에 심는데 부단한 기도와 노력을 전제한다.<sup>22)</sup>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살롬 공동체인 성경적 건강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해야 할 일의 초점은 구주시며 왕이신 예수님의 공생애의 처음과 마지막 메시지에 초점을 두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와 구성원으로서 믿지 않은 사람들과

---

22) 이와 관련하여 2008년 11월 29일 서울 사이버 대학에서 전인건강학회 주최와 21세기 바보모임 주관으로 『건강도시와 교회의 역할 포럼』이 창립되었다. 이 포럼은 한국교회가 그 자원을 통해 이웃사랑의 정신으로 도시의 영적·신체적·정신적·사회적·환경적 고통을 치유하는 것을 돕기 위한 것이다. 각 도시를 중심으로 개최되는 포럼은 건강도시를 위해서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왔고 무엇이 문제며 그 원인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보다 충실한 역할을 할 것인가에 그 해답을 탐구하는 마당이다. 이러한 마당은 학제간 연구를 통해 아이디어뱅크가 되는 전인건강학회에서 주최하고 욕심을 버리고 바보처럼 섬기며(고린도 전서 1:21,27; 롬 12:1) 21세기를 바로 보는(로마서 12:2) 사람들(21세기 바보모임)에서 이를 주관해왔다. 역사적으로는 이 포럼은 뜻있는 분들 즉 시카고 21세기 바보들과 함께 2007년부터 여름방학과 겨울 방학을 통해 전인건강학회 주최와 21세기 바보모임 주관으로 열어왔다. 2007년 7월 23일 시카고에서 "건강도시와 교회의 역할 포럼(Healthy Cities and Roles of Church Forum: HCRCF)"을 시작했다. 다른 말로 "세상의 빛과 소금 포럼(Light and Salt of World Forum: LSWF)"이다. 간단히 세빛소 포럼이다. 이 포럼의 목적도 교회의 자원을 통해 시카고 한인사회의 영적·정신적·신체적·사회적·환경적 고통을 치유하도록 돕는데 있다. 1회는 기독교 TV 예향에서, 2회는 2008년 2월 12일 사랑과 건강을 주제로 시카고 한인 연합감리교회에서, 3회는 8월 3일 건강도시와 회개를 주제로 스웨디시 병원에서 열렸다. 4회는 암과 전인건강을 주제로 내년 2월 1일과 7일에 각각 아가페 장로교회와 스웨디시 병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의 상호작용과 지혜로운 협력을 통해 통합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린 시쿰(Linthicum, 2005)은 성경의 시각에서 권력(power)의 개념을 변혁을 위한 개념으로 탐구하며 관계적 권력(relational power)의 개념을 통해 교회간의 협력은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협력도 강조한다.<sup>23)</sup>

물론 이러한 노력이 우리가 사는 도시를 성경적 건강도시인 살롬 커뮤니티로 만드는데 어느 정도 기여할지 모르며 이 땅에 지상천국을 실현하는 것과 같은 어느 자유주의 신학자의 낙관적 견해나 이 땅은 예수가 재림할 때까지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전천년설의 주장과 같은 비관적인 복음주의자의 입장을 배격한다. 인간의 타락으로 죄악의 흙탕물의 역사가 예수님의 재림까지 도도히 흐를지라도 역사의 중요한 시기마다 깨끗한 지류가 흘러왔고 앞으로 도도 흐를 것이다. 예수님께서 교회와 교회를 구성한 우리 각자를 향하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23) 린시쿰은 권력을 관계적 권력(relational power)과 일방적 권력(unilateral power)로 나누고 전자를 다시 호혜적 권력(mutual power)와 상호적 권력(reciprocal power)로, 후자를 주도적 권력(dominating power)과 구성적 권력(constitutional power)으로 나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대치상황(confrontation)에 있을 때 백성들의 영향력을 통해 이러한 관계적 권력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마태복음 21: 19-27에서 예수님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를 마르게 했을 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어떤 권위로 이것을 행하느냐라는 질문으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했을 때 예수님은 "요한의 세례가 어디에서 왔느냐의 질문을 던짐으로 그들이 사람으로부터라고 대답했을 때 그들이 백성을 무서워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다는 것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린시쿰은 은행이 더 높은 이익을 얻기 위해 자기가 속한 교회와 이웃교회들의 지역을 수익성이 없는 지역으로 명목을 붙여서 거주민들을 몰아내는 것을 관계적 권력을 통해 교회들이 연합해서 은행의 담당자와 대치하여 막은 사례를 들고 있다. 기독교인들이 현실에 안주하고 사회의 구조 악에 대해 외면하거나 피상적인 접근을 하는데 대해 경청해야 할 시사점을 주고 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섬김의 본을 보이시고 서로 섬길 것을 가르쳤다. 이것이 일방적 권력과 다른 권력의 본질을 가르쳐 준다. 삶의 질과 함께 권력의 본질을 분석하는 것은 공적 신학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다(마가복음 12:30-31). 하나님을 사랑하는 도시, 이웃을 사랑하는 도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자신을 사랑하는 도시가 바로 살롬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 동안 이러한 노력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당연한 것이다.

예수님의 공생애 처음과 마지막 메시지에 초점을 두어 성경적 건강도시인 살롬커뮤니티를 형성하는 방향을 제시하려고 한다.

### 1. 살롬커뮤니티의 주체로서 교회의 거룩성 회복

개혁된 교회는 거룩성을 위해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 아무리 큰 교회라 할 지라도 거룩성이 희미해지면 세속문화의 거센 물결 속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어서 무능하고 추한 교회로 전락하기 쉽다.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거룩성을 지향할 때 세속문화 속에서도 힘을 발휘할 수 있고 아름다운 교회로 남을 수 있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본질이다. 규모가 큰 교회로서 거룩성을 유지한다면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규모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교회의 거룩성이다(에드먼드 클라우니, 1995: 96-104). 교회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변혁의 주체는 그 동력을 상실하고 만다. 세상 사람들과 문화를 변혁하려면 교회변혁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sup>24)</sup>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거룩한 모습을 회복해야 한다. 첫째, 교회에 침투한 세속적 가치관을 회개해야 한다. 이기주의, 배금주의, 결과중심주의 등을 회개해야 한다. 둘째, 예수중심의 공동체 의식이 미약한 점을 회

24) 21 세기 복음주의 권 선교를 위해 6권으로 만들어진 조사연구보고서인 세계의 연구(World Inquiry)에서 부시(Bush, 2004: vii)는 사람과 교회 및 문화의 변혁을 핵심요소를 제시한다. "The thesis of this book is that God is calling (God)out servants to act as catalysts in building(mobilizing) the whole body of Christ to bless the nations through the transformation of people, churches, and culture"

개해야 한다.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 전체의 몸을 세워가도록 함께 협력해야 한다. 교파, 교단, 지방색, 개교회 중심의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서 교파가 다르더라도 건강한 교리를 가지고 있으면 예수중심의 몸된 지체의식을 가지고 협력하는 정신을 가져야 할 것이며 특히 같은 지역 내에서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셋째, 반기독교문화에 대해 잠자고 있음을 회개해야 한다. 이 세대의 어둠의 자녀들이 빛의 자녀보다 더 지혜롭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눅 16:8). 기독교인은 비둘기 같이 순결하며 뱀과 같이 지혜로워야 할 것이다. 이 땅에 건강한 시민문화를 해치고 고통을 주는 세력에 대해서 연구하고 대응해야 할 것이다. 다니엘이 바빌론문화 속에서 신앙의 지조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능력과 지혜를 즐기치게 구했다(다니엘 2:20).

예수님은 계시록의 일곱 교회 중 4개의 교회에 대해서 엄중하게 회개를 명하신다. 오늘날 왜 예수님이 회개를 강조한 점을 깊이 되새겨 봐야 한다. 주님의 칭찬여부와 책망여부는 진단에 해당되며 주님의 권고는 우리가 따르기를 바라는 주님의 처방에 해당되며 주님의 심판과 주님의 보상여부는 예수께서 오실 때 행할 것들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로버트 보이드(Boyd, 1980: 807-810)는 계시록의 일곱 교회의 속성들을 들고 있다. <표 19>는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재구성한 것이다(조무성, 2000: 11-12).

〈표 19〉 계시록의 일곱 교회의 특징의 비교

계시록의 일곱 교회	주님의 칭찬	주님의 책망	주님의 권고	주님의 심판	주님의 보상
에베소 교회	교리적으로 건전(2:1-3,6)	처음 사랑 버림 (2:4)	생각하고 회개하라 (2:5)	증거상실(2:5)	영적 결실 (2:7)
서머나 교회	충성됨 (2:8,9)	없음	죽도록 충성하라 (2:10)	없음	생명의 면류관 (2:10,11)
버가모 교회	충성됨 (2:12-13)	타협(2:14,15)	회개하라 (2:16)	하나님이 대적하심(2:16)	영적식물과 용납(2:17)
두아디라	충성됨 (2:18,19)	거짓선생들 (2:20)	굳게 잡아라 (2:25)	짐들 ( 2:24)	권세 (2:26-29)
사데교회	몇 명이 충성됨(3:1,4)	위선 (3:1-2)	일깨워 회개하라 (3:2-3)	도적같이 임하심(3:3)	의로운 옷 (3:5)
빌라델피아 교회	충성됨 (3:7,8,10)	없음	굳게 잡아라 (3:10-11)	없음	강한 기둥 (3:12)
라오디게아 교회	없음	미지근함 (3:15)	회개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라 (3:17-19)	징계(3:19)	지위 (3:21)

## 2. 섬김을 본받아 큰 교회가 작은 교회를 섬김

힘 있는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을 섬긴다는 것은 현실의 논리에는 맞지 않으나 성경의 논리는 맞는다. 예수님이 본체 하나님인데 종의 형태로 오셔서 제자들을 섬김으로 키웠기 때문이다. 사람은 돈, 지식, 권력, 인기, 미모, 명예 등이 많아질수록 겸손해지기 어렵고 교만하기 쉬운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성령을 통해서 인간적인 욕심을 버리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 하나님 앞에

바보가 될 때 지혜를 얻어 세상을 바로 보는 사람이 될 수 있다(로마서 12:1, 2; 고린도 전서 1:21, 27).

도시의 영적,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환경적 고통의 문제는 큰 교회 든 작은 교회 든 함께 힘을 합쳐 해결해야 한다. 도시의 문제는 각 나라의 행정구역으로 나누어진 구획내의 교회들이 힘을 합쳐 해결해 가는 것이 하나님이 각 교회를 도시에 부른 이유이며 그 구역 내의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바람직한 것이다. 도시 변혁의 성패는 도시 교회들의 자발적 참여에 있다. 우리나라에는 큰 교회들이 숫자로 보면 소수이고 영향력을 많이 미치고 있다. 현재의 도시에 있는 큰 교회들과 작은 교회 사이에 협력에 대한 장애요인이 존재한다. 그것은 교인들의 수평이동에서 오는 작은 교회의 고민들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시의 변혁은 기대하기가 어렵다. 큰 교회가 자원이 많고 영향력이 있으니 작은 교회들에 대해 같이 도시를 변화시키자고 한들 동참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다. 큰 교회가 예수중심의 교회연합의 촉매자와 봉사자로서의 위상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로서는 통하지 않는다. 우선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이를 위해 교회들이 위치하고 있는 도시에 믿는 사람들의 비율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비율이 정확히 파악되어야 한다. 도시속의 불신자들에게 대한 공동어장을 공동 관리하는 의식이 확립되어야 한다. 우선 큰 교회는 도시에 있는 중소 교회 특히 작은 교회가 공동어장에서 사람 낚는 어부 역할을 잘하도록 기도해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재훈련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실질적으로 작은 교회를 도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도시에 신앙인물을 훈련하는 기독교정신문화원을 설립하여 작은 교회의 구성원들에게 비용 없이 교육프로그램을 받도록 하는 것도 돕는 것의 예가 될 수 있다.

### 3.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강한 사명감 고취

기존의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영적,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환경적 고통을 치유하는 데는 투철한 사명감이 요구된다. 왜냐하면 이러한 고통을 치유한다는 것은 장기적 안목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기의 성과를 발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신의 마음을 바쳐서 일편단심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명감을 가진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성경적 건강도시를 위한 프로그램은 깜짝 이벤트로 끝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자신이 사는 도시 속에서 살롬을 심고 확산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기쁨을 가지고 평생 동안 걸어갈 수 있는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야 하며 교회는 이러한 사람을 발굴해 내고 그렇게 되도록 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데 생명을 아끼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은혜를 힘입어 옥에서도 주안에서 기뻐하며 믿음을 지키고 그 사명을 완수했다(사도행전 9:4-4, 고린도 후서 12:9-10, 빌립보서 4:10-11, 디모데 후서 4:7-8). 교회는 도시를 변화시키고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각 방면의 사람들에게 사명감을 고취시켜야 한다.

### 4. 삶의 각 영역에 말씀을 지키는 제자들을 키워야 함

왜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마지막 메시지로 제자들을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했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백성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첫마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와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다(마태복음 4:16-19). 제자가 된다는 것은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역량을 가지는 것이다. 제자를 키우는 것은 건강 국가를 건설하는 핵심적인 대안이다. 국가라는 집

은 대들보가 정치요 기둥이 경제며 주춧돌이 교육이기 때문이다.

〈표 20〉 성품과 힘의 강도에 따른 인간유형

힘 \ 성품	성품	착함	악함
강함		I	II
약함		III	IV

〈표 20〉에서 교육을 통해서 착하고 능력 있는 사람(I)을 키우지 않고 악하고 능력 있는 사람(II)을 키울 때 국가의 기초는 부실해지고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도시라는 집도 마찬가지이다. 도시문제 해결의 핵심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도시에 고통을 주는 사람들은 악하고 힘센 사람들이며 고통을 덜고 고통을 주는 사람을 통제하는 사람은 착하고 힘센 사람들이다.

교회는 정치, 경제 사회, 학문, 예술, 체육, 환경, 기술, 농업, 공업, 수산업 등 각계각층의 지도자를 키워야 한다. 성경적 건강도시를 만드는 프로젝트는 다양한 은사와 재능을 가진 모범적인 지도자들에 의해 함께 만들어 질 때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때문이다.

### 5. 기독교 학문 직업 공동체 구축과 자원의 확보

성경적 건강도시를 만드는데 영적,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환경적, 고통을 치유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필요로 한다. 기독교 학문공동체는 성경적 세계관에 기초하여 지식을 생산하고 분배하는 학문공동체로서 여기에는 신학을 비롯한 인문, 사회, 자연과학의 학문의 연구자와 교수 및 교원들로 구성된다. 기독교 직업공동체는 기독교학문 공동체에서 생산된 지식을 현장에서 적용하는 공동체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법, 환경, 사회, 교육 예술, 산업, 농업, 기술, 체육 등의 다양한 직업분야의 전문가들이나 직업



종사자들을 포함한다(조무성, 1989). 기독교 학문공동체구축은 살림 공동체를 형성하는 바탕이다.<sup>25)</sup>

## 6. 학문직업 공동체를 통해 해결하는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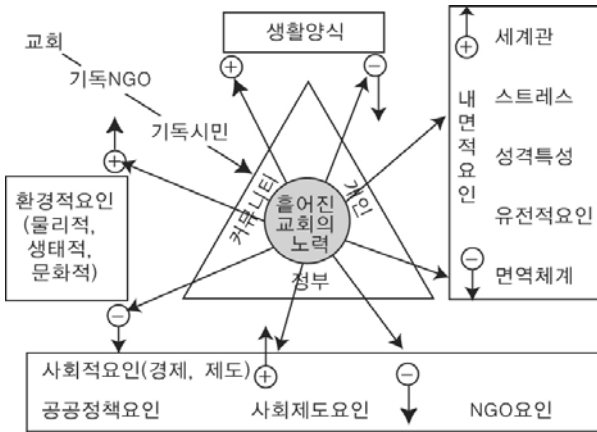
도시에 공통된 이슈도 있지만 도시마다 다른 이슈를 갖고 있다. 예컨대 암 등 건강이나 취업에 대한 이슈는 공통이슈가 될 수 있다. 우간다는 에이즈가, 인도의 비하르 지역에서 빈곤과 문맹이 이슈이기 때문에 서로 다르다. 춘천은 경제발전이 이슈지만 포항은 공해가 이슈가 된다. 또한 예컨대 암의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학문직업공동체의 자원을 연결할 수 있다. 학문공동체의 신학자는 생명중시의 가치를 성경적 세계관에 비추어 탐구하고 기초의학자와 임상의학자는 암의 정체와 원인 및 메커니즘을 설명하며 암의 역학자는 암의 발생빈도, 암사망지수를 조사연구하며 사회과학자는 암정책안을 만든다. 직업공동체에서 언론은 암의 심각성과 예방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며 입법부의 국회의원은 암 통제를 위한 입법안 마련하고 행정 정책관련 공무원은 합리적 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한다. 공해문제, 주택문제, 생명윤리문제, 복지문제, 의료문제에도 적용될 수 있다.

25) 예컨대 살림공동체 건설에 기여하기 위해 기독교학문직업공동체의 시각에서 전인건강학회([www.hha.kr](http://www.hha.kr))와 전인건강운동([www.holistichealth21.net](http://www.holistichealth21.net))의 두 단체는 긴밀한 연결을 추구하며 사망률 1위인 암으로 고통 받는 자를 돕기 위한 암퇴치운동본부([cancerwar21.org](http://cancerwar21.org))도 같은 시각이다. 이러한 섬김의 핵심공동체가 21세기 바보모임([www.babo21.org](http://www.babo21.org))이며 이들을 통해 21세기 바보네트워크([www.babo21.net](http://www.babo21.net))가 형성되길 기도하며 소망하고 있다. 기학연과 학술동역회 및 기운실과 같은 귀한 단체들이 유지되고 조금씩 발전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바보 선배들과 동료 및 후배들이 있기 때문이다. 국내의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보들이 모일 때 갈등을 최소화하며 섬김의 공동체를 이루어 이 땅에 착하고 힘센 사람을 키우는 기독교정신문화원이 나 21세기 지도자 대학원 대학교 같은 강력한 구심체가 형성될 수 있다.

### 7.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성경적 건강도시를 위한 총체적 노력

성경적 건강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다음의 <그림3>에서 흠어진 교회로서 기독인들이 참사랑을 품고 주어진 위치에서 생활양식과 환경과 사회 및 내면적 세계관의 부정적인 면(-)을 없애고 긍정적인 면(+)을 촉진시키는 통합된 노력을 하는 것이다.

<그림 3> 성경적 건강도시를 위한 흠어진 교회의 통합노력 모형



출처 : 조무성(2008), “건강도시와 도시환경의 신학적 접근: 살뜰커뮤니티 형성,” 전인건강학회 학술발표 논문집, 그림 일부수정

### VI. 결론 : 요약 및 한계

건강도시란 시민의 마음, 몸, 사회, 환경의 건강인 전인건강을 위해서 시장 부와 민간이 함께 애쓰는 도시이다. 우리나라가 48개 도시가 WHO 건강도시 연맹에 가입되었고 계속 늘어날 전망은 국가와 교회의 위기를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생활행정학과 신학은 이웃사랑을 뿌리로 하는 삶의 질 향상에  
서 만날 수 있고 만나야 한다. 생활행정학의 주제인 건강도시는 행정에 건강  
을 반영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는 행정학이다. 신학의 주제인  
살롬커뮤니티는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결과로서 성경적 건강도시를 의미한  
다. 이러한 성경적 건강都市는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성경적 전인건강을 위해 애  
쓰는 도시이다. 성경적 건강도시와 비성경적 건강도시의 구별은 기독교 세계  
관을 뿌리로 하고 있는가의 여부에 달려있다. 성경적 건강都市는 하나님을 사  
랑하며 영적 건강을 바탕으로 한다. 일반적 의미의 건강도시와 살롬커뮤니티의  
공통분모는 이웃을 사랑하며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이러한 공통분모를 확  
대해 가는 것이야말로 오늘날 교회와 기독교인들의 부정적 이미지를 바꾸고 하  
나님 나라를 위해 중요한 전략이다. 따라서 살롬커뮤니티인 성경적 건강都市를  
만들기 위해 예수님의 공생애의 첫 메시지인 회개와 마지막 메시지인 제자 키  
우기를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이에 대한 순종에 주력해야 한다. 기독교인은 시민  
으로 건강都市를 위해서 힘써야 하고 교회는 다양한 자원을 통해 도시의 영적,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 환경적 고통을 치유하는데 더욱 집중해야 한다.

본 논문의 한계는 많은 자료를 수집했음에도 도시에 관한 여러 신학적 입  
장이나 공적 신학에 대한 충분한 독서를 하지 못했고 소화를 시키지 못한 점  
과 이 분야를 전공한 신학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앞으로 뜻있  
는 신학자들이 연구하고 필자처럼 다른 분야의 전문가가 학제적으로 함께 연  
구함으로써 성경적 건강都市인 살롬커뮤니티 형성에 더 큰 연구의 성과가 이  
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보다 적실성 있는 연구를 위해 한국의 교회공동체가  
건강都市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를 경험적으로 조사하고 성경적 건강  
都市와 무엇이 괴리가 되었는지 왜 괴리가 생겼는지 어떻게 괴리를 메워 가야  
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한 해답의 추구가 미래의 연구과제이다.

## 참고문헌

- 간하배 (1994), "도시화와 개인화 현상," 『상담과 선교』, 2(3), 33-57.
- 권용우 (1998), 『도시의 이해』, 박영사.
- 기윤실·교회신티회복네트워크 (2008),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발표 세미나 자료집』.
- 김경재 (2006), "공공신학에 관한 한국개신교의 두 흐름: 보수적 기독교의 사유화 신앙과 진보적 기독교의 참여의 신앙," 『공공철학시리즈』, 16, 417-447, 동경: 동경대학 출판회.
- 김공현 (2008), "건강에 이로운 도시 프로젝트의 골격," 『건강·안전도시 워크숍 자료집』, 서울특별시 건강증진담당관.
- 김남식 (2000), "도시선교의 신학적 이해," 『신학지남』, 겨울호 (통권 265), 7- 33.
- 김상균 (1996),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길잡이』, 서울 나남.
- 김성욱 (2000), "21세기 도시선교를 위한 교회의 전략," 『신학지남』, 겨울호 (통권 265), 34-55.
- 김서택 (2008), 『일어나 빛을 발하라』, 서울: 생명의 말씀사.
- \_\_\_\_\_ (2005), 『역사의 대드라마 요한계시록』, 한국성서유니온 선교회.
- 김성태 (1994), "개혁주의 관점에서 본 도시선교운동의 전략연구," 『신학지남』, 가을·겨울호(통권 241), 310-329.
- 김영섭 (1996). "21세기 한국인의 삶의 질과 사회정책," 『21세기 한국행정론』. IVP 성경신학사전 (2000), Arnold, 도시, 639-640.
- 로버트 보이드 (1984), 『종합성경연구』, 서울: 나침반.
- 리처드 니이버 (2007), 『그리스도와 문화』, 서울: IVP.
- 마형락 (1997), 『왜, 선교사가 도시로 가야만 하는가?』, 활천.
- 문시영 (2007), 『공공신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북 코리아.
- 손영목 (2007),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인가?』, 서울: 쿠파란.

- 새세대교회윤리연구소 (2008), 『공공신학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서울: 북  
코리아.
- 양용의 (2006), 『하나님 나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성서유니온 선교회.
- 윌터스토프 (2007), 『정의와 평화가 입 맞출 때까지』, 서울: IVP.
- 유동근 (2007), 『요한계시록 강해』, IMC 국제선교신학원 출판부.
- 에드먼드 클라우니, (1995), 황영철 옮김, 『교회』, 서울: IVP.
- 윤철호 (2002), 『현대신학과 현대 개혁신학』, 서울: 장로회신학대학 출판부.
- 이달곤 (1990), "삶의 질, 정치공동체와 개인의 자유(21세기 위원회 세미나 주  
제)," 『21세기 행사자료』.
- 인수위 백서 (2008).
- 이승구 (2008), "공적 신학에 대한 개혁파적 접근," 미래목회포럼 신학심포지움  
자료집, 44-59.
- 이형기 (2008), "공적 신학의 지평: 하나님 나라- 한국교회의 공적 책임을 중심  
으로," 미래목회포럼 신학심포지움 자료집, 10-43.
- 장석만 (2005), "한국개신교의 또 다른 모색: 기독교 조선복음 교회와 도시산업  
선교회," 『역사비평』, 70, 103 -122. 서울: 역사비평사
- 정병관 (2005), "도시 중심 지역에서의 선교와 목회에 관한 고찰," 『신학지남』,  
봄호 (통권 282), 208-227
- 조명한·차경효 (1998), 『삶의 질에 대한 국가 간 비교』, 서울 : 집문당.
- 조무성 (2008), "'국민을 위한 건강도시 만들기,' 문화일보, 9월 20일자
- \_\_\_\_\_ (2007), "건강도시의 현황과 행정개혁의 방향,"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  
발표논문집』, 267-319.
- \_\_\_\_\_ (2006), "시민을 위한 건강도시 만들기," 문화일보, 7월 23일자.
- \_\_\_\_\_ (2005a), "청계천 복원사업의 분석과 건강도시의 방향: 생활행정학의 접  
근,"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발표 논문집』.
- \_\_\_\_\_ (2005b), "건강도시의 성격과 전망: 생활행정학의 접근,"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논문집』.
- \_\_\_\_\_ (2002), 『한국행정인은 누구인가?: 삶의 질, 인간형, 행정문화, 모범사

- 레』,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 \_\_\_\_\_ (2000a), 『암과 싸우는 열 가지 방법』,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
- \_\_\_\_\_ (2000b), 『교회와 문화』, 서울: 하나
- \_\_\_\_\_ (1999), "생활행정학으로서의 행정학: 21세기 패러다임".  
하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195-242.
- \_\_\_\_\_ (1998), "생활행정학으로서의 한국행정학: 문제해결역동모형의 탐색,"  
『동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 299-331.
- \_\_\_\_\_ (1989), 통합연구학회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학문연구자료집 2(3),  
127-136.
- 존 스토트 (2005), 『현대사회문제와 그리스도인의 책임』, IVP.
- 최세창 (2005), 『요한계시록』, 427, 서울: 글벗사.
- 통계청 (2006), 『사망원인통계연보』 .
- 하혜수 (1996). "도시정부의 '삶의 질' 결정요인분석," 『한국행정학보』 .
- 한림의대 가정의학교실(1999), 『삶의 질 측정의 이론과 실제』, 서울: 고려의학.
- 황기연 외 (2005), 『프로젝트 청계천: 갈등관리전략』, 서울: 나남.
- Adams C. (2003), "Smoke-free California: Democracy Meets Public Health," *National Civic Review*, 87(4): 311-316.
- AFHC (2008a), "Using Consumption Tax for Sustainable Resourcing of Healthy City of Wonju, Republic of Korea," *Academic Session Papers*. The 3rd Global Conference of the Alliance for Healthy Cities, 46-48.
- \_\_\_\_\_ (2008b), *Alliance for Healthy Cities Directory*. 90-157. The 3rd Global Conference of the Alliance for Healthy Cities.
- Bashford, Alison (2006), "Global Biopolitics and the History of World Health," *History of the Human Sciences*, 19(1): 67-88.
- Berger, Peter L. and Luckman, Thomas (1966), *The Social Construction of Reality: A Treatise of Social Knowledge*, N. Y.: Doubleday, 1-46.
- Boyd, T. Robert (1982) *Boyd's Bible Handbook*, N.Y.: Harvest House.
- Bush, Louis K, ed. (2004), *Transformation: A Unifying Vision of the*

*Church Mission.*

- Carmen, Ira. (1997), "Biopolitics: the Newest Synthesis?", *Genetica*, 99(2-3), 173-184.
- Claerbaut, David (2005), *Urban Ministry in a New Millenium*, Seattle, WA, Authentic and World Vision.
- Dackson, Wendy (2006). "Archibishop William Temple and Public Theology in a Post Christian Context," *Journal of Aglican Studies*, 4(2): 240-242.
- Forrester. Ducan B. (2004), The Scope of Public Theology. *Studies in Christian Ethics*, 17(5), 6-7.
- Greenway, Rogers and Timothy Monsma (2000), *Cities: Mission's New Frontiers*, Grandrapids, MI: Barbooks.
- Harvey, Conn and Manuel Ortiz (2001), *Urban Ministry*, Garden Grove: IVP.
- Flynn et al. (1991), "Healthy Cities: The Indiana Model of Community Development in Public Health," *Health Education & Behavior*, 18(3), 331-347.
- John, R. Alford, and John, R. Hibbing (2008), *The New Empirical Biopolitics*,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11(1), 183-203.
- Kirk, Andrew (1989). "A Different Task: Liberation Theology and Local Theologies," in Anthoney Harvey ed., *Theology in City*, Bristol: WBC.
- Knollmueller, Ruth N. and Abrams, Sarah E. (2005). "Beverly C. Flynn, an Oral History with a 20th Century Activist," *Public Health Nursing*, 22(2), 180-185.
- Linthicum, Robert C. (2006), *Building a People of Power: Equipping Churches to Transform Their Communities*, 4-22, Seattle, WA, Authentic and World Vision.
- Longest, Beaufort B. (1998), *Health Policy Making in Unites States*,

- Chicago, Ill: Health Administration Press.
- Lyng, Stephen (1990), *Holistic Health and Biomedical Medicine, A Counter System Analysis*, N. Y. : SUNY.
- Meyer-Emerick, Nancy (2007), Public Administration and the Life Sciences: Revisiting Biopolitics, *Administration & Society*, 38(2), 689-708
- Murray, Michael (2000), "Social capital formation and healthy communities: insights from the Colorado Healthy Communities Initiative," *Community Development Journal*, 35(2), 99-108.
- Ottmann, Jacquelyn (2004), *Green Marketing: Opportunities and Innovation*, 1-19, N. Y.: Booksurge, 1-19.
- Phillips, David R. & Yola, Verhasselt (1994), "Introduction," In David R. Phillips & Verhasselt Yola, ed. *Health and Development*, N. Y.: Routledge, 1994.
- Roberts, M. (1938), *Bio-politics: An essay on physiology, pathology, and politics of the social and somatic organism*, London: J. M. Dent.
- Royal Commission on Environmental Pollution (2007), *The Urban Environment*, London: TSO.
- Rudner, Richard S. (1966), *Philosophy of Social Science*, 7-8. N. J.: Prentice-Hall.
- Sheinfeld-Gorin, Sherri and Joan Arnold (2006), *Health Promotion in Practice*, Sanfrancisco, Ca: Jossey-Bass.
- Sider et al. (2002), *Churches that Make a Difference*, Grandrapids, MI: BarberBooks.
- Somit, A. & Peterson, S. A. (1999), *Rational choice and biopolitics: A (Darwinian) tale of two theories*. *PS*, 32, 39-44.
- Stackhouse, Max L (1997). Public Theology and Ethical Judgement. *Theology Today*, 54(2), 165-167.



Twiss, Joan M., Duma Shirley, Look Vivian, Gregory S. Shaffer and Anne C. Watkins (2000), "Twelve Years and Counting: California's Experience with a Statewide Healthy Cities and Communities Program," *Public Health Reports*, 115(2/3), 125-133.

Ziegler, Philip (2002), God and Some Recent Public Theologies, *International Journal of Systematic Theology*, 4(2), 146-147.

[http://alliance-healthycities.com/htmls/members/index\\_members.html](http://alliance-healthycities.com/htmls/members/index_members.html)

<http://en.wikipedia.org/wiki/Interdisciplinarity>

<http://web.mit.edu/urbanupgrading/urbanenvironment/issues/key-UE-issues.html>

<http://www.afro.who.int/eph/publications/healthy-cities>

<http://www.eauk.org/>

<http://www.euro.who.int/document/hcp/ehcpquest.pdf>

<http://www.euro.who.int/healthy-cities>

[http://www.euro.who.int/healthy-cities/CitiesAndNetworks/20040227\\_3](http://www.euro.who.int/healthy-cities/CitiesAndNetworks/20040227_3)

<http://www.euro.who.int/document/e82653.pdf>

<http://www.kosis.kr>

<http://www.merriam-webster.com/dictionary/disease>

<http://www.who.dk/document/E56270.pdf>

<http://www.worldevangelicals.org/>

## Abstract

# Relations Between Healthy Cities and Shalom Communities: Meeting in Life-Centered Public Administration and Theology

Moosung Cho(Korea University)

Healthy city is one of which government is striving for holistic health including mental, physical, social, and environmental health. 48 cities in Korea have become members in Alliances for Healthy Cities(AFHC) in the Western Pacific Region of WHO. Life-Centered Public Administration(LCPA) is focusing on the improvement of quality of civic life. Shalom communities, as theme of theology mean biblical health cities as result of normal relations among God, man and nature based on the kingdom of God. LCPA and Theology can meet each other in the improvement of quality of civic life rooted in love of neighbor. Biblical healthy cities or nonbiblical cities depend on whether they are rooted in christian world view or not. Biblical healthy cities are based on the love of God and spiritual love through the redemption of Jesus Christ. The Common ground between healthy cities and shalom communities is to love our neighbors and to improve their quality of life. To expand these common area is important strategy for change of negative image of christians and churches for the kingdom of God. Therefore we should

concentrate on the first and last message of public life of Jesus Christ, 'repentance' and 'discipleship.' Christians as heavenly citizens should make every effort for especially biblical, healthy cities. Churches should make most of their diverse resources in healing spiritual, mental, social, environmental suffering of people in cities.

**Key words:** Shalom Communities, Life-Centered Public Administration: LCPA, Holistic Health, Biblical Healthy Cities, Quality of Life, Evangelicalism, Liberal Theology, Public theology